문학 개념 이해·적용 03

운율과 시상 전개

대치동 재우쌤

연결 개념 · 문학 개념 요약 시05

1부	운율 읽기 · E01~E07 · 문항 01~20
2부	시상 전개 읽기 · E08~E20 · 문항 21~44
3부	작품에서 근거 찾기 · 자료 A~D · 문항 45~56
4부	01·02편과 함께 읽기 · 자료 E · 문항 57~60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 문항별 판단 근거 · 모든 선지의 해설

기호 약속: / 끊어 읽는 자리(음보의 경계) · 밑줄: 살펴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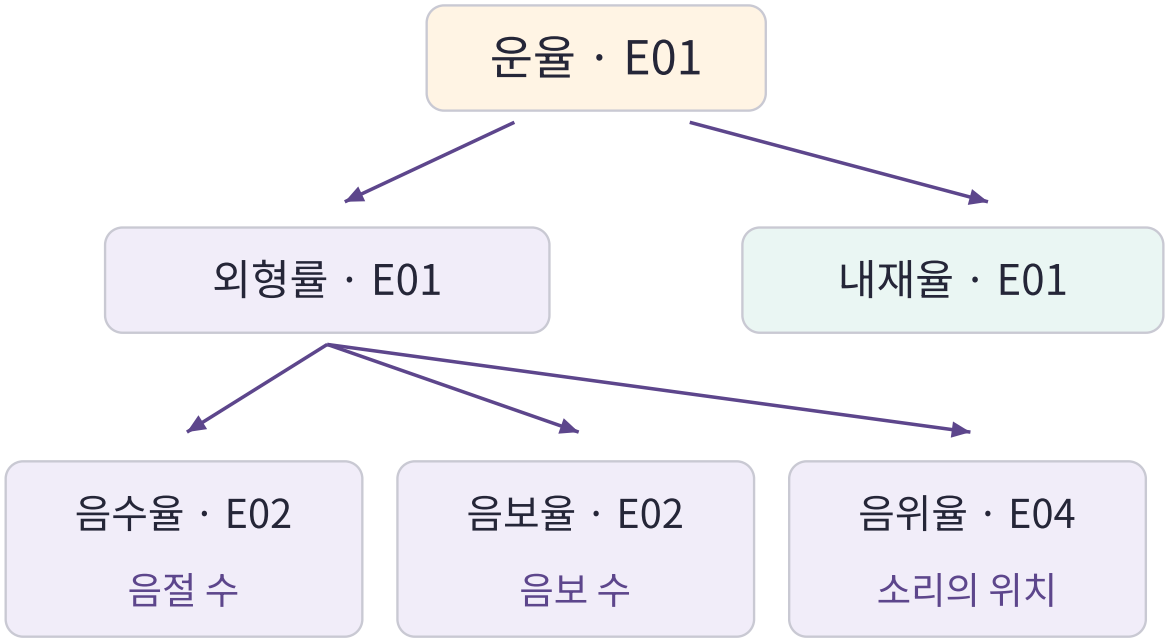
‘실제 작품에서는’ 상자의 고전 구절을 제외한 예문과 문제 지문은 학습용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음보를 비교하는 예에서는 끊어 읽는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부. 운율 읽기

운율의 종류와 운율을 만드는 방법



음위율은 보충 개념

운율을 만드는 방법

- 소리의 반복 · E04
-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 E04
- 문장 구조의 반복 · E04
- 음성 상징어 · E03
- 후렴구·여음 · E05
- 변주 · E06
- A-A-B-A · E07

한 방법이 여러 운율에 관여할 수 있다. 형식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Ⅰ. 말의 가락을 만드는 요소

E01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운율이 없나요?

한 줄 답 아니요. 일정한 음절 수·음보 수가 없어도 말의 반복과 호흡, 의미의 흐름에서 가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운율	시를 읽을 때 느끼는 말의 가락	어떤 소리·말·형식이 되풀이되는가
외형률	음절 수·음보 수·소리의 위치 등 일정한 형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행마다 어떤 규칙이 되풀이되는가
내재율	일정한 형식이 뚜렷하지 않아도 말의 호흡과 의미에서 느껴지는 운율	무엇이 반복되고 어디에서 쉬는가

예와 판단

예	판단 근거	무엇이 규칙인가
달빛은 / 내려앉고 물결은 / 반짝인다	두 행 모두 3·4조의 음수율이 드러나는 외형률의 예다.	3음절·4음절의 반복
천천히.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길에서 나는 다시, 천천히.	행의 길이는 다르지만 '천천히'의 반복과 멈추는 호흡이 가락을 만든다. 일정한 형식이 뚜렷하지 않은 내재율의 예다.	일정한 음절·음보 수는 뚜렷하지 않음

/는 끊어 읽는 위치입니다. 반복된 낱말 하나만 보고 외형률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자유롭게 쓴 시에는 운율이 없다	행의 길이가 달라도 말의 반복과 호흡에서 운율이 생긴다.
운율이 있으면 반드시 즐겁다	같은 반복도 기다림·슬픔·다짐 등 문맥에 따라 다른 느낌을 만든다.

E02 음절과 음보는 무엇을 세는 건가요?

한 줄 답 음절은 소리의 마디로, 여기서는 한글 글자 한 자를 한 음절로 셉니다. 음보는 한 행을 끊어 읽는 덩어리를 셉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음절	소리의 마디. 여기서는 한글 글자 한 자를 한 음절로 센다.	글자 수를 세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빼기
어절	띄어쓰기로 나뉜 한 덩어리	'흰 눈이'는 두 어절
음보	시를 일정한 가락에 따라 끊어 읽는 덩어리	한 행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는가
음수율	일정한 음절 수의 반복으로 생기는 운율	음수(音數): 소리의 수. 음절 수의 반복 확인
음보율	일정한 음보 수의 반복으로 생기는 운율	음보(音步): 소리의 걸음. 끊어 읽는 덩어리 수의 반복 확인

예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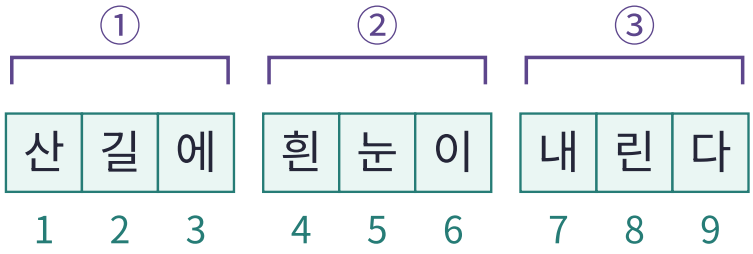
음보는 보통 3~4음절 안팎의 덩어리로 나타나지만,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자 한 자를 한 음절로 세고, / 는 끊어 읽는 위치로 봅니다.

표시된 끊어 읽기	각 음보의 음절 수	음보 수
산길에 / 흰 눈이 / 내린다	3·3·3	3음보
푸른 강 / 저 너머 / 작은 배 / 떠간다	3·3·3·3	4음보

같은 첫째 행을 세는 기준	세는 대상	운율을 판단하려면
음절로 세면	산-길-에, 흰-눈-이, 내-린-다: 3·3·3	이 음절 수의 배열이 되풀이되는지 본다(음수율).
음보로 세면	산길에, 흰 눈이, 내린다: 세 덩어리	이 음보 수가 되풀이되는지 본다(음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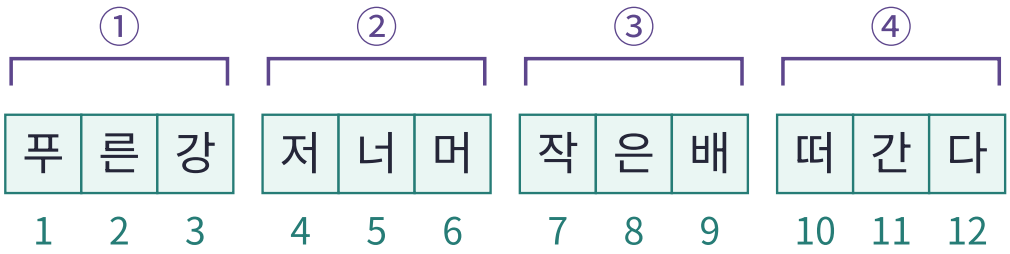
'산길에'는 한 어절, '흰 눈이'는 두 어절이지만 이 예에서는 각각 한 음보입니다. 띄어 쓴 어절을 하나씩 세어 음보 수로 삼지는 않습니다.

글자 칸은 음절 · 묶음은 음보



산길에 / 흰 눈이 / 내린다

9음절 · 3음보



푸른 강 / 저 너머 / 작은 배 / 떠간다

12음절 · 4음보

음절 수의 반복 → 음수율 · 음보 수의 반복 → 음보율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3음보이면 한 행이 3음절이다	3음보는 세 음보(끊어 읽는 덩어리)라는 뜻이다. 각 단위 안에는 여러 음절이 들어갈 수 있다.
음보마다 음절 수가 같아야 한다	음보 수가 같아도 각 단위의 음절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작품에서는

갈래	끊어 읽기	확인
고려 가요	가시리 / 가시리 / 잇고	세 덩어리, 3음보. '가시렵니까'라는 뜻. 여음을 제외한 구절이다.
평시조	태산이 / 높다 하되 / 하늘 아래 / 뫼이로다	네 덩어리, 4음보. '뫼'는 산이라는 뜻.

음보가 언제나 3~4음절인 것은 아닙니다. 위 고려 가요의 '잇고'는 2음절입니다.

E03 ‘의성어’와 ‘의태어’는 둘 다 소리를 흉내 내나요?

한 줄 답 의성어는 소리를,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상태를 흉내 냅니다. 둘을 아울러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용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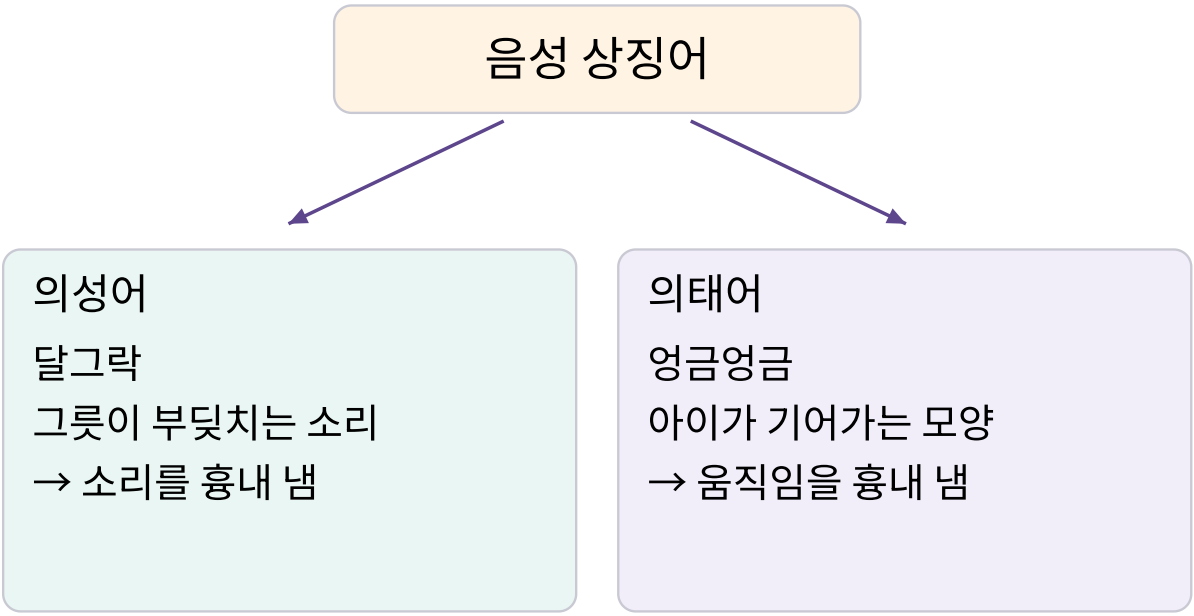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음성 상징어	소리나 모양·움직임·상태를 흉내 낸 말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름
의성어	소리를 흉내 낸 말	무슨 소리를 흉내 냈는가
의태어	모양·움직임·상태를 흉내 낸 말	어떤 모습이나 움직임을 흉내 냈는가

예와 판단

예	흉내 낸 것	판단
그릇이 달그락 부딪힌다.	그릇이 부딪치는 소리	의성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	몸을 움직여 기어가는 모양	의태어
마룻바닥이 차갑다.	피부로 느끼는 온도	감각적 표현이지만 ‘차갑다’는 흉내 낸 말이 아니다.

의성어·의태어는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며, 반복되어 쓰이면 운율 형성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의 ‘상징’은 02편에서 배운 원형적·관습적·개인적 상징의 분류와 구별합니다.

음성 상징어: 무엇을 흉내 냈는가?



차갑다·네모나다: 감각을 나타내도 흉내 낸 말은 아니다.
의성어·의태어는 생동감을 주고 운율 형성에도 관여할 수 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눈에 보이는 표현은 모두 의태어다	'네모난 창'은 모양을 나타내지만 흉내 낸 말은 아니다.
흉내 내는 말이 있으면 청각적 이미지다	의성어는 청각, 의태어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와 이어진다. 실제 문맥도 확인한다.

E04 똑같은 낱말이 없어도 반복으로 운율을 만들 수 있나요?

한 줄 답 네. 비슷한 소리나 문장 구조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풀이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음운의 반복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되풀이함	어떤 자음·모음이 반복되는가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낱말·구절·행을 되풀이함	같은 말이 어디에 다시 나오는가
유사한 문장 구조	낱말이 달라도 문장을 짜는 틀이 비슷함	주체·대상·행동 등을 배열하는 방식
음위율(보충)	일정한 위치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되풀이하여 생기는 운율	첫머리·가운데·끝 등 소리가 놓인 위치

예와 판단

예	되풀이되는 요소
바람이 바다를 비껴 분다.	여러 낱말의 첫소리에 나타나는 ‘ㅂ’
달빛은 마당에 내리네. 별빛은 창가에 어리네.	각 행의 끝자리에 놓인 ‘리네’ 소리 — 음위율(보충)
오늘도 기다린다. 내일도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과 ‘~도 기다린다’라는 틀
나는 등불을 지킨다. 너는 약속을 품는다.	‘누가 + 무엇을 + 어찌한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

한 부분에 시어의 반복과 문장 구조의 반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복은 운율뿐 아니라 특정 의미를 강조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소리·말·문장 틀에서 반복 찾기

소리의 반복 · 첫소리 ㅂ

바람이 바다를 비껴 분다.

말의 반복

오늘도 기다린다.

내일도 기다린다.

문장 구조의 반복

나는	등불을	지킨다.
너는	약속을	품는다.

누가 + 무엇을 + 어찌한다

색이 같은 부분에서 되풀이되는 소리·말·역할을 찾는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똑같은 문장이 아니면 반복이 아니다	일부 낱말이 달라도 비슷한 소리·문장 틀이 되풀이될 수 있다.
반복이 있으면 기쁨이 고조된다	반복되는 말의 내용과 상황을 함께 읽어 효과를 판단한다.

E05 후렴구와 여음은 같은 말인가요?

한 줄 답 후렴구는 일정한 위치의 반복을, 여음은 노랫가락을 돕는 소리의 성격을 봅니다. 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후렴구	연이나 단락의 일정한 위치에 되풀이되는 말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가
여음(여음구)	노랫가락을 돕는 소리. 뚜렷한 낱말로서의 뜻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뜻을 전하기보다 가락을 돕는 소리인가

예와 판단

반복 위치와 소리의 성격	뜻이 분명한 말	뜻 없이 가락을 돕는 소리
각 연의 같은 자리에 반복됨	각 연 끝의 '여기서 다시 만나자' → 후렴구	각 연 끝의 '라라라' → 후렴구이면서 여음
같은 자리의 반복이 없음	한 번만 제시한 서술 '문을 닫는다' → 이 예에서는 둘 다 아님	끝에 한 번 붙여 가락을 잇는 '라라라' → 여음, 후렴구는 아님

반복 여부를 알 수 없으면 후렴구인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여음은 흥을 돋우는 구절이라는 뜻에서 **조흥구**라고도 부르며, 후렴구와 함께 운율·정서·통일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후렴구와 여음은 서로 다른 두 기준

반복 위치와 소리의 성격	뜻이 분명한 말	뜻 없이 가락을 돕는 소리
각 연의 같은 자리에 반복	여기서 다시 만나자 → 후렴구	라라라 → 후렴구 + 여음
같은 자리의 반복이 없음	한 번만 서술한 문을 닫는다 → 이 예에서는 둘 다 아님	끝에 한 번 붙여 가락을 잇는 라라라 → 여음

반복 여부를 모르면 후렴구인지는 판단을 보류한다.
여음은 낱말로서의 뜻이 희박해도 가락·정서에 기여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후렴구는 모두 뜻이 없는 말이다	뜻이 분명한 약속의 말도 일정한 위치에 반복되면 후렴구가 될 수 있다.
여음은 작품에서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	낱말로서의 뜻과 별개로 가락과 정서에 관여한다.

실제 작품에서는

고려 가요: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 가락을 돕는 여음구이며, 각 연 끝에 되풀이되는 후렴구이기도 합니다.

E06 조금씩 바뀌는 반복은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한 줄 답 유지되는 틀과 바뀌는 부분을 함께 찾아, 변화가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변주	알아볼 수 있는 틀이나 의미를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바꾸어 반복함	같은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함께 찾기

예와 판단

어제는 네 소식을 기다렸다.
오늘은 네 발소리를 기다린다.
내일은 네 웃음을 기다리리.

유지되는 것	바뀌는 것	읽을 수 있는 효과
상대를 기다리는 마음과 '네 ~을·를 기다리다'라는 틀	어제·오늘·내일, 소식·발소리·웃음, 시제	기다림을 이어 가면서 상대와 만날 순간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한다.

무엇이 강해졌는지는 별도의 문맥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주: 같은 틀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

같은 틀 [ ] 바뀌는 부분 [ ]

어제는	네	소식	을	기다리- 기다렸다.
오늘은	네	발소리	를	기다리- 기다린다.
내일은	네	웃음	을	기다리- 기다리리.

네 ~을·를 기다리다: 기다림의 틀을 유지한다.
시간·대상·시제가 바뀐다. '기다리다'의 형태도 달라진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낱말이 달라지면 반복이 끊긴다	같은 틀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변주는 언제나 감정을 점점 강하게 만든다	대상·상황을 넓히거나 분위기에 변화를 주는 데에도 쓰인다.

E07 A-A-B-A에서 B와 마지막 A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한 줄 답 B는 반복에 변화를 주고, 마지막 A는 앞의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그 의미는 사이에 놓인 내용과 함께 읽습니다.

용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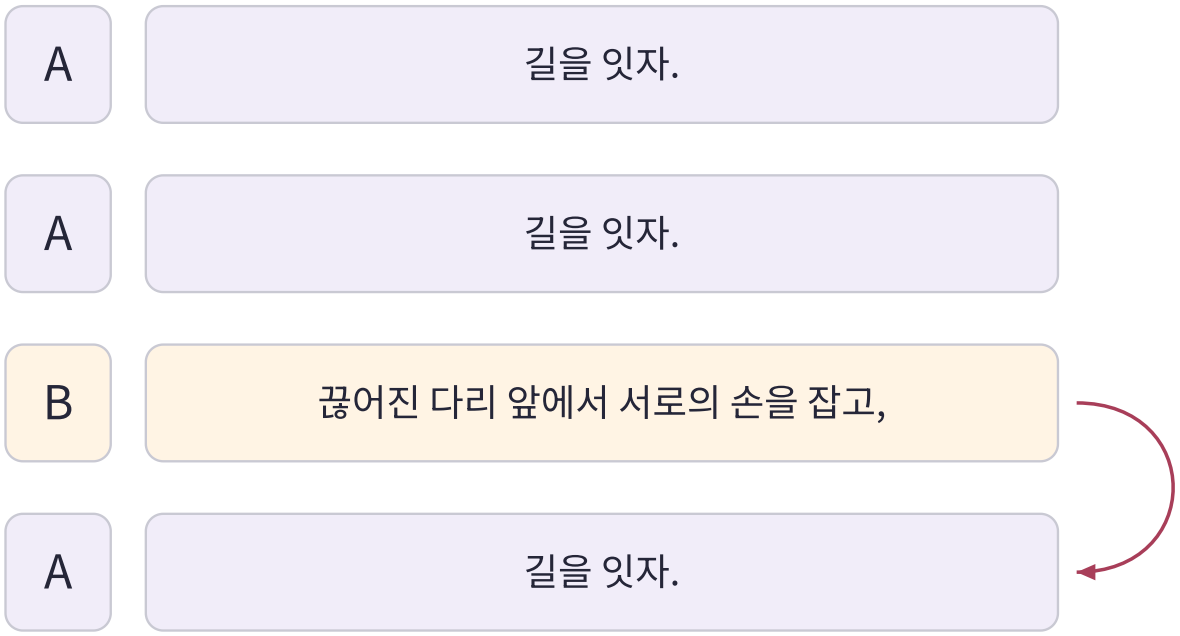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A-A-B-A 구조	비슷한 표현 A를 반복하다가 B로 변화를 주고 A로 돌아오는 배열	B와 마지막 A의 내용·역할

예와 판단

순서	표현	이 예의 역할
A	길을 잇자.	함께 길을 잇자는 뜻을 제시한다.
A	길을 잇자.	같은 뜻을 반복한다.
B	끊어진 다리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길을 잇기 위해 마주한 상황과 행동을 덧붙인다.
A	길을 잇자.	앞의 다짐을 돌아오게 하며 협력의 뜻을 강조한다.

A·B는 표현의 배열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B가 있다고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거나, 갈등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A-A-B-A: 반복에 더해지는 뜻



마지막 A는 B의 상황·행동을 거치며 협력의 뜻을 강조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A-A-B-A이면 B는 반드시 주제를 반박한다	B가 어떤 상황·행동·변화를 덧붙이는지 실제 내용을 읽는다.
마지막 A는 앞과 글자가 같으므로 역할도 완전히 같다	같은 말도 중간 내용을 거치며 의미가 구체화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실제 작품에서는

고려 가요: [A 살어리] [A 살어리랏다] [B 청산애] [A 살어리랏다] — ‘살리라’는 비슷한 표현에 ‘청산에’라는 장소를 더하고 돌아옵니다. 첫 A는 짧은 형태이며, 여기서 대괄호는 **표현 배열**을 표시합니다.

1부 확인 · 운율의 근거 찾기

01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조금만 더.
> 언덕 끝의 집이 보일 때까지
> 조금만 더.

① 행의 길이가 달라도 같은 구절의 반복이 운율을 만든다.

② 음절 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율을 느낄 수 없다.

③ 모든 행이 같은 음절 수이므로 외형률이 드러난다.

④ 반복이 있으므로 화자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

답 [ ]

02 **두 행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음수율은?**

> 별빛이 / 쏟아진다
> 풀잎이 / 흔들린다
> ※ /는 끊어 읽는 위치이다.

① 4·4조

② 4·3조

③ 3·4조

④ 3·3조

답 [ ]

03 **표시된 끊어 읽기를 기준으로 두 행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 강가에 / 노을이 / 번진다
> 들판에 / 저녁빛이 / 내린다
> ※ /는 끊어 읽는 위치이다.

① 모든 행 끝의 동일한 시어 반복

② 세 음보(끊어 읽는 덩어리)의 반복

③ 소리를 흉내 낸 말의 반복

④ 모든 음보(끊어 읽는 덩어리)의 3음절 반복

답 [ ]

04 **표시된 끊어 읽기에 따라, 각 음보의 음절 수와 전체 음보 수를 쓰시오.**

> 저 산에 / 흰 구름이 / 흘러갑니다
> ※ /는 끊어 읽는 위치이다.
> 각 음보의 음절 수: 첫째 _____ , 둘째 _____ , 셋째 _____
> 전체 음보 수: _____ 음보

05 **두 행을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바람에 / 흰 잎이 / 떨린다
> 바람에 / 흰 꽃잎이 / 떨린다
> ※ /는 끊어 읽는 위치이다.

① 두 행의 전체 음절 수가 다르므로 음보 수도 반드시 다르다.
② 가운데 음보의 음절 수가 달라도 두 행은 모두 3음보로 읽는다.
③ 가운데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반복되는 요소는 남아 있지 않다.
④ 두 행은 어절 수가 같아야 같은 음보 수로 읽을 수 있다.

답 [ ]

06 **의성어를 사용한 것은?**

① 새 신발의 표면이 매끄럽다.
② 아기가 뒤뚱뒤뚱 걸어온다.
③ 둥근 접시가 선반 위에 놓였다.
④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답 [ ]

07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나비가 꽃 위에서 팔랑팔랑 날갯짓한다.

① 나비라는 소재에 공동체가 부여한 관습적 상징이다.
② 맛을 직접 나타내는 미각적 표현이다.
③ 날갯짓하는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④ 나비가 내는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답 [ ]

08 **감각적 표현이지만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① 차가운 컵이 손바닥에 닿는다.
② 문고리가 달칵 소리를 낸다.
③ 깃발이 펄럭펄럭 흔들린다.
④ 강아지가 깡충깡충 뛴다.

답 [ ]

09 **다음 표현에서 되풀이되는 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뿐히 스미는 새벽의 숨결

① 여러 낱말의 첫소리 'ㅅ'
② 각 행 끝의 '다'
③ 모든 음절의 끝소리 'ㅁ'
④ 모든 낱말의 첫소리 'ㄱ'

답 [ ]

10 **두 행의 운율 형성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나는 씨앗을 고른다.
> 너는 화분을 옮긴다.

① 각 행 끝에 뜻 없는 여음이 붙는다.
② 주체·대상·행동을 제시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③ 각 행이 똑같은 낱말로만 이루어진다.
④ 의성어를 여러 번 사용한다.

답 [ ]

11 **두 연의 마지막 행이 하는 일로 적절한 것은?**

> [1연]
> 언덕 아래서 작은 불을 켠다.
> 오늘도 길을 밝히자.
> [2연]
> 비바람 속에서 등잔을 감싼다.
> 오늘도 길을 밝히자.

① 낱말로서의 뜻이 전혀 없는 여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같은 위치에서 되풀이되는 후렴구로 다짐을 강조한다.
③ 행마다 서로 다른 음절 수를 규칙 없이 늘린다.
④ 앞 연의 행동을 모두 부정한다.

답 [ ]

12 **다음 노래에서 '라라라'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 각 연 끝마다 가락을 잇기 위해 뜻을 전하는 말 대신 '라라라'를 되풀이한다.

① 가락을 돕는 여음이면서 일정한 위치에 반복되는 후렴구이다.
② 한 번만 쓰인 소리이므로 반복과 관계없다.
③ 여음이므로 가락 형성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④ 후렴구이면 뜻이 없는 소리가 될 수 없으므로 후렴구가 아니다.

답 [ ]

13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은?**

> 이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 '라라라'를 붙여 가락을 이어 간다.

① 가락을 돕는 기능이 있다는 점
② '라라라'가 각 연의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인지 여부
③ 노랫가락을 이어 가는 소리가 쓰였다는 점
④ 여음의 예로 볼 수 있다는 점

답 [ ]

14 **여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낱말로서의 뜻이 없으면 작품에서 삭제해도 효과가 항상 같다.
② 여음은 반드시 어떤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다.
③ 여음은 후렴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④ 뚜렷한 낱말로서의 뜻이 없더라도 가락과 정서에 기여할 수 있다.

답 [ ]

15 **다음 세 행의 반복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봄에는 창을 열어 꽃향기를 맞고
> 여름에는 창을 열어 빗소리를 듣고
> 가을에는 창을 열어 낙엽을 본다.

① 뜻이 없는 소리만 되풀이하는 여음이다.
② '계절에는 창을 열어'라는 틀을 유지하며 계절과 감각 대상을 바꾼다.
③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같은 행을 되풀이한다.
④ 세 행의 문장 틀에는 공통점이 없다.

답 [ ]

16 **세 행에서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어절 두 개를 그대로 쓰시오.**

> 저녁마다 창문을 닦는다.
> 저녁마다 책상을 닦는다.
> 저녁마다 의자를 닦는다.

답 _____

17 **네 행의 배열을 A-A-B-A로 볼 때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문을 열어 두자.
> 문을 열어 두자.
> 젖은 발로 찾아올 이를 위해
> 문을 열어 두자.

① 셋째 행이 문을 열어 둘 목적을 덧붙이고 마지막 행이 앞의 권유로 돌아온다.
② 네 행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이다.
③ 셋째 행이 앞의 권유를 부정하여 문을 닫자고 바꾼다.
④ 마지막 행만 앞의 세 행과 아무 관련 없는 말을 한다.

답 [ ]

18 **다음 네 행의 배열로 적절한 것은?**

> 우리는 기다린다.
> 우리는 기다린다.
> 멀리서 첫 기차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 우리는 기다린다.

① A-B-A-B
② A-A-B-A
③ A-A-A-B
④ A-B-B-A

답 [ ]

19 **두 자료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가)
> 그 이름을 부른다.
> 그 이름을 부른다.
> 끝내 대답 없는 방에서.
>
> (나)
> 그 이름을 부른다.
> 그 이름을 부른다.
> 마침내 돌아온 친구를 향해.

① (나)의 반복은 운율과 아무 관계가 없다.
② 반복되는 말이 같아도 (가)는 부재의 안타까움, (나)는 재회의 반가움과 연결된다.
③ 같은 말을 반복하므로 두 자료의 정서는 반드시 같다.
④ (가)에만 같은 구절의 반복이 있다.

답 [ ]

20 **이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 [1연]
> 들꽃이 / 피어난다
> 함께 걷자, 함께 걷자.
>
> [2연]
> 별들이 / 반짝인다
> 함께 걷자, 함께 걷자.
> ※ /는 끊어 읽는 위치이다.

① 같이 걷자는 권유의 반복
②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의 반복
③ 각 연 첫 행의 3·4조 음수율
④ 같은 위치에 놓인 후렴구

답 [ ]

2부. 시상 전개 읽기

2부 개념 지도 ·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간의 관계 E09~E10

순행 · 역순행
계절·하루 등의 순환
제시 순서와 실제 시간 구별

공간의 관계 E11~E12

몸의 이동 · 시선 이동
시간의 흐름·여정을 따름
추보식 구성

처음·중간·끝의 배열 E13~E16

수미상관 · 대비 · 선경후정 · 기승전결
순서뿐 아니라 부분 사이의 관계를 읽는다.

각 부분의 기능 E17~E20

유발: 생각을 떠올리게 함
확산 · 심화 · 고조 · 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집약: 앞의 뜻을 모음 · 마무리: 흐름을 끝맺음

한 작품·한 대목에 여러 방식과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위 기능들이 반드시 이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Ⅱ. 시간·공간·부분의 관계

E08 시상 전개는 줄거리를 줄여 쓰는 것인가요?

한 줄 답 시에 담긴 생각과 감정이 어떤 순서와 관계로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시상	시에 담긴 생각과 감정	사건을 통해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가
시상 전개	생각과 감정을 일정한 순서와 관계로 펼치는 방식	장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와 판단

> 혼자 남은 줄 알고 문을 닫으려 했다.
> 문 앞에는 내 이름이 적힌 따뜻한 도시락이 있었다.
> 나는 아직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구나.

살펴볼 부분	내용
계기	내 이름이 적힌 따뜻한 도시락의 발견
앞의 마음	혼자 남았다는 느낌
뒤의 마음	누군가 나를 생각한다는 깨달음

시간·공간·시선의 변화는 생각과 감정을 펼치는 방법입니다. 전개 방식을 찾은 뒤에는 그 변화가 화자의 마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살핍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시상은 시 속에서 일어난 사건만 뜻한다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생각과 감정까지 포함한다.
한 시에는 전개 방식이 하나뿐이다	시간 변화·시선 이동·정서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E09 시간 순서와 작품에 나온 순서가 다르면 어떻게 읽나요?

한 줄 답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때를 확인한 뒤, 작품이 그 순서를 따르는지 거슬러 가는지 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순행적 흐름(순행적 구성)	실제 시간의 앞뒤 순서에 따라 전개함	앞 시간 → 뒤 시간
역순행적 흐름(역순행적 구성)	회상 등을 통해 실제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전개함	현재 장면 뒤에 과거 장면이 끼어드는가
순환적 흐름	계절·하루처럼 되풀이되는 시간의 주기를 바탕으로 전개함	한 주기를 지나 다음 주기로 이어지는가

예와 판단

제시된 순서	실제 시간의 관계	이름
아침 장터를 연다 → 한낮에 사람이 모인다 → 저녁 천막을 접는다	아침 → 한낮 → 저녁	순행적 흐름(순행적 구성)
오늘 운동화를 본다 → 처음 그 신발을 신고 뛰던 세 해 전을 떠올린다	세 해 전이 오늘보다 먼저임	역순행적 흐름(역순행적 구성)
오늘 운동화 → 세 해 전 경기 → 다시 오늘 운동화	과거 장면이 현재 장면 사이에 끼어듦	역순행적 흐름(현재 → 과거 → 현재). 회상 뒤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다음 봄	시간은 앞으로 가고 계절의 주기는 반복됨	순환적 흐름. 순행과 함께 성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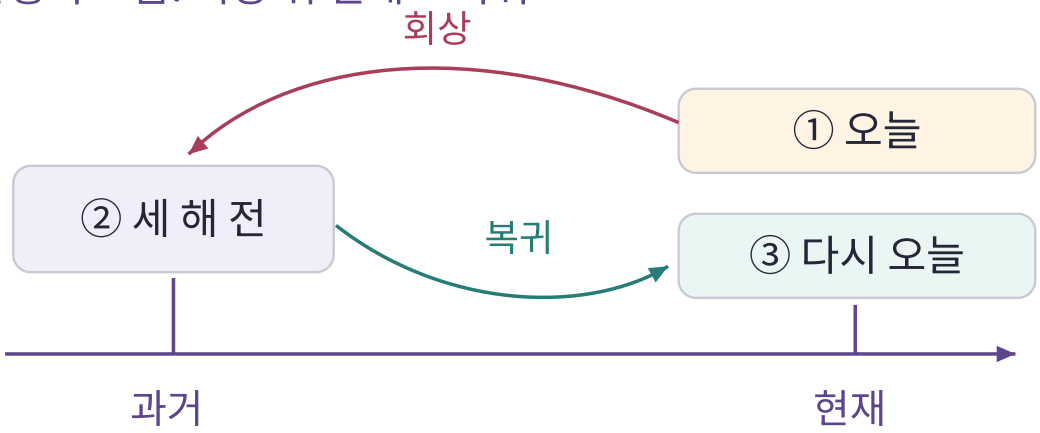
‘내일도 이 길을 다시 걷겠다’에서 ‘다시’는 미래에 행동을 되풀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간축 위에 제시 순서 놓기

순행적 흐름: 시간 순서를 따라감



역순행적 흐름: 회상 뒤 현재로 복귀



번호는 시에 나온 순서, 가로축은 실제 시간의 앞뒤이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과거가 나오면 작품 전체가 역순행이다	과거가 어디에 제시되고 다음 장면이 어느 시간인지 함께 본다.
'다시'가 있으면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간다	같은 행동을 미래에 되풀이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다. 시간의 기준을 확인한다.

E10 현재로 돌아오면 모두 순환적 흐름인가요?

한 줄 답 아니요. 계절·하루처럼 되풀이되는 시간의 주기를 바탕으로 전개하는지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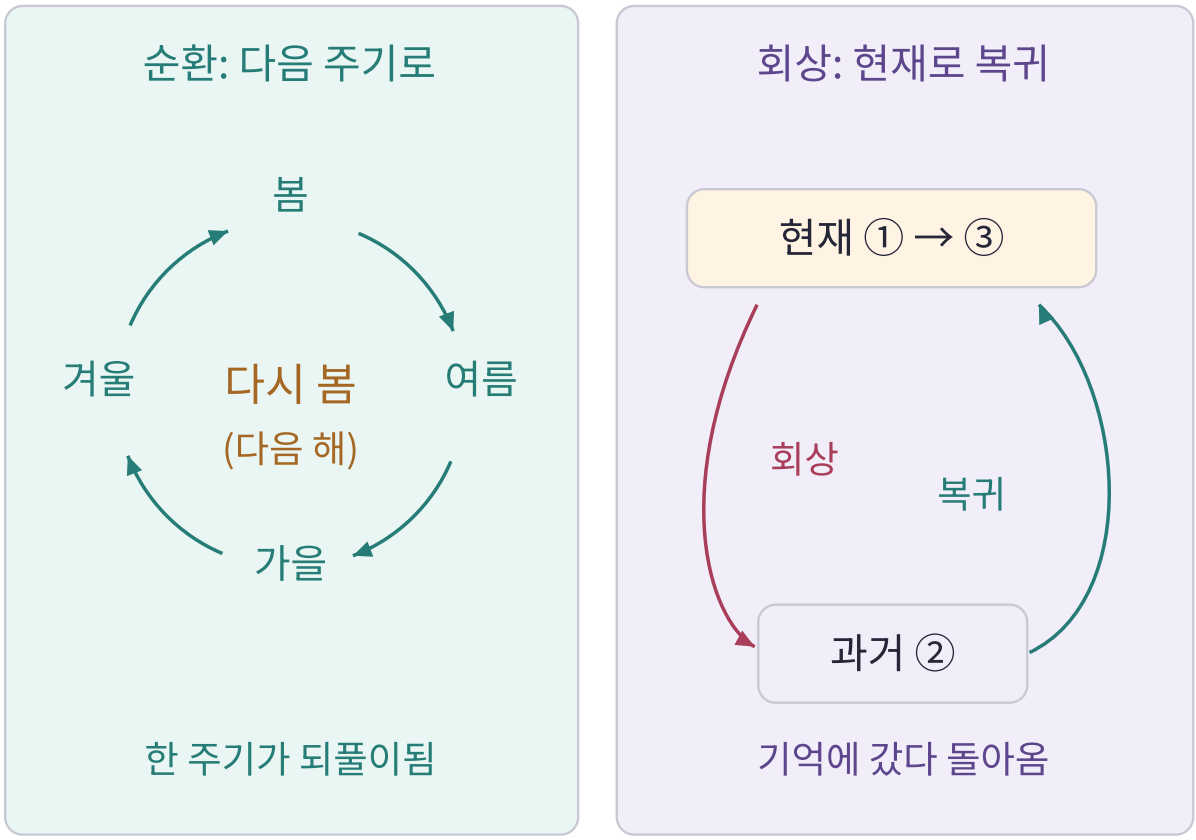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순환적 흐름	되풀이되는 시간의 주기를 바탕으로 전개함	같은 계절·시간대가 다음 주기에 돌아오는가
회상 후 현재 복귀	과거를 떠올린 뒤 현재 장면으로 돌아옴	주기의 반복이 아니라 회상이 끝난 것인가

예와 판단

예	판단
올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잎을 살피고, 가을에 씨를 거두고, 겨울을 지나 이듬해 봄에 다시 씨를 뿌린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서 계절의 주기가 한 바퀴 돌아온다. 순환적 흐름이다.
오늘 씨앗 주머니를 보다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다시 오늘의 밭을 본다.	역순행적 흐름으로 과거를 회상한 뒤 현재로 돌아온다. 이것만으로 계절·하루의 순환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의 순환과 회상 후 복귀



순환에서도 실제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
회상 뒤 현재로 돌아왔다고 시간의 주기가 반복된 것은 아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순환적 흐름이면 실제 시간이 거꾸로 간다	다음 봄을 맞는 동안 시간은 앞으로 흘러도 계절의 주기는 반복된다.
처음과 끝의 문장이 같으면 시간도 순환한다	표현의 대응과 시간의 주기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E11 먼 곳을 바라보면 화자도 그곳으로 이동한 건가요?

한 줄 답 몸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바라보는 대상이나 방향만 바뀌었는지를 구별합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공간 이동	화자가 실제로 장소를 옮김	몸의 위치가 바뀌는가
시선 이동	바라보는 대상·방향이 달라짐	눈길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가는가
근경·원경	근경은 가까운 경치, 원경은 먼 경치	화자를 기준으로 대상까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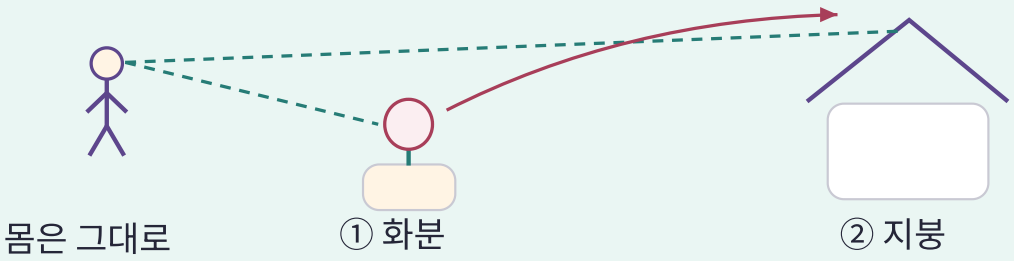
예와 판단

예	몸의 위치	바라보는 대상·방향	판단
창가에 앉은 채 화분에서 건너편 지붕으로 눈길을 돌린다.	창가 그대로	화분 → 지붕	시선 이동
창가를 떠나 계단을 내려가 마당에 선다.	창가 → 계단 → 마당	따로 제시되지 않음	공간 이동
마당으로 걸어 나가 발밑 돌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든다.	실내 → 마당	돌 → 나뭇가지	공간 이동과 시선 이동
제자리에서 발밑 꽃을 본 뒤 먼 산을 본다.	그대로	가까운 곳 → 먼 곳	근경 → 원경의 시선 이동
먼 산을 보다가 발밑 꽃으로 눈길을 내린다.	그대로	먼 곳 → 가까운 곳	원경 → 근경의 시선 이동
땅에서 가지로 눈을 들거나 가지에서 땅으로 눈을 내린다.	그대로	아래 → 위 또는 위 → 아래	위아래 방향의 시선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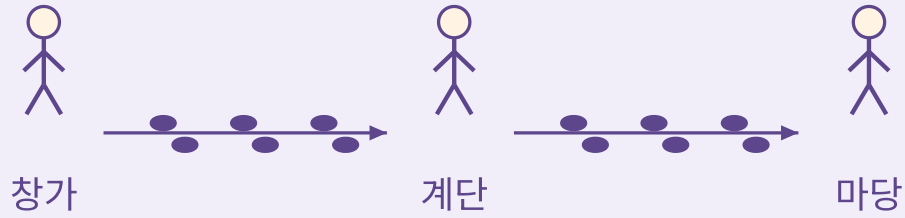
몸의 위치와 눈길을 따로 추적하기

몸의 이동 ------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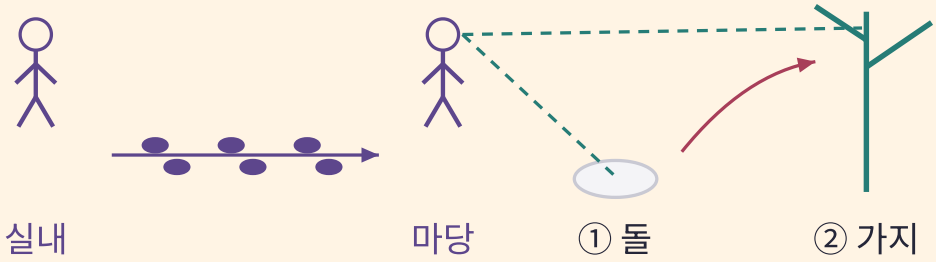
① 시선 이동



② 공간 이동



③ 공간 이동 + 시선 이동



먼 곳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에 갔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공간 이동과 시선 이동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여러 장소가 나오면 화자가 모두 방문했다	눈으로 본 장소·기억 속 장소일 수도 있다. 이동 동작을 확인한다.
공간 이동과 시선 이동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E12 추보식 구성은 무엇을 따라 시상을 펼치나요?

한 줄 답 시간의 흐름이나 이동한 길(여정)을 따라 차례대로 시상을 펼치는 구성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이나 이동한 길(여정)을 따라 차례대로 시상을 펼치는 구성	추보(追步): 걸음을 따라감. 시간·여정의 순서를 따라가기

예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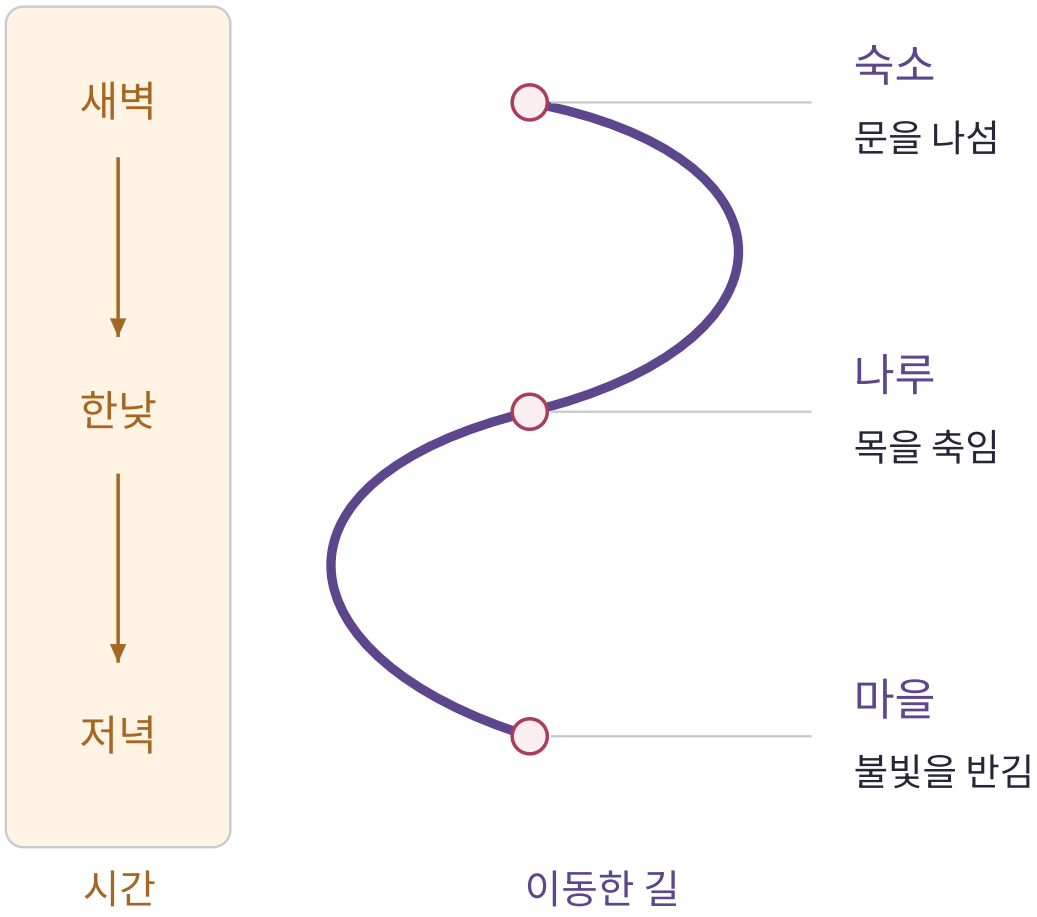
다음은 시간과 장소가 함께 바뀌는 **여정형 예**입니다.

> 새벽, 나는 숙소 문을 나섰다.
> 한낮에는 강가 나루에서 목을 축였다.
> 저녁, 고개 너머 마을에 닿아 불빛을 반겼다.

시간	장소	그곳의 행동·마음
새벽	숙소	길을 떠난다.
한낮	나루	걸음을 멈추고 목을 축인다.
저녁	고개 너머 마을	도착한 곳의 불빛을 반긴다.

시간 순서에 따른 전개도 추보식이라 부르므로, 장소 이동을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정을 읽을 때는 몸의 이동과 눈길의 이동을 구별합니다.

추보식 구성의 한 예: 여정을 따라가기



시간의 흐름이나 여정을 따라 차례대로 펼친다.
이 그림은 시간과 장소가 함께 바뀌는 여정형 예이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눈길만 옮겨도 그곳을 방문한 여정이다	시선 이동을 몸이 옮겨 간 여정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장소를 옮겨야만 추보식 구성이다	같은 자리에서 시간 순서대로 펼쳐도 추보식 구성이라고 부른다.

E13 수미상관이면 처음과 끝의 마음도 똑같나요?

한 줄 답 처음과 끝의 표현·내용이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을 거치며 그 말의 의미나 화자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수미상관·수미상응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표현·내용을 대응시킴	수(首, 머리)·미(尾,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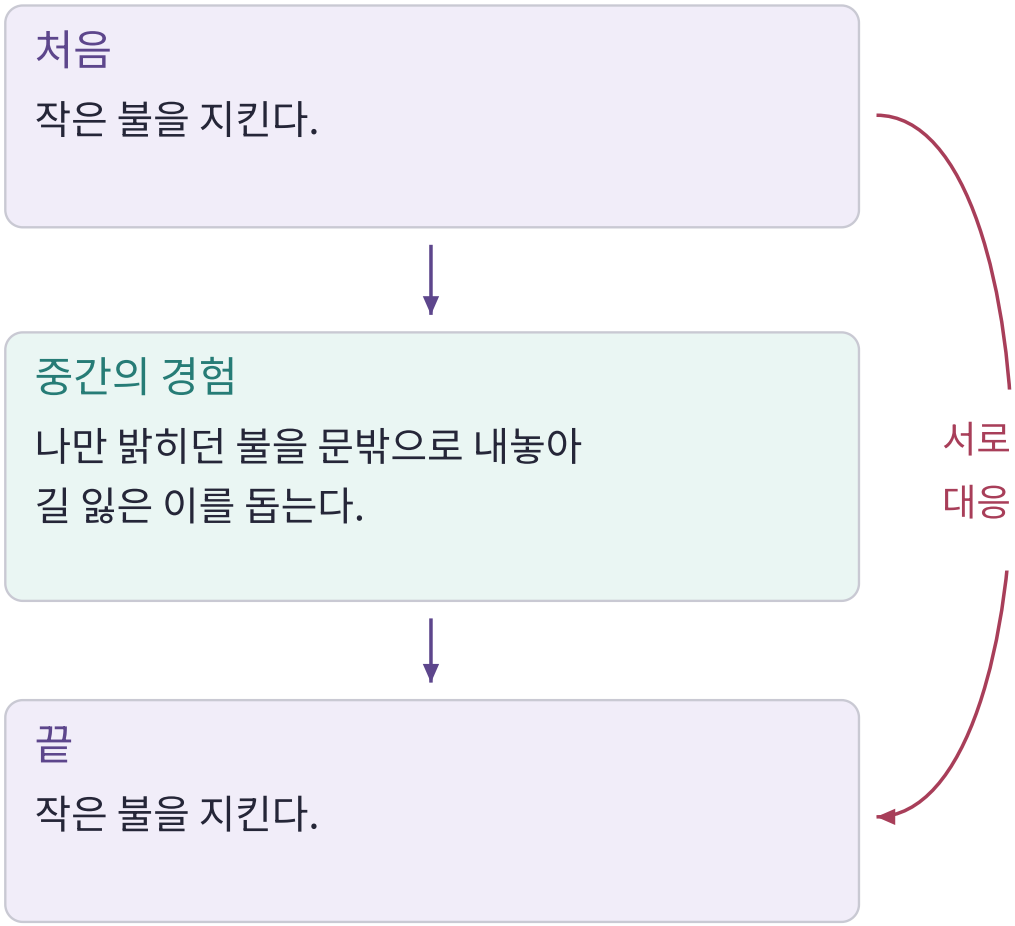
예와 판단

작은 불을 지킨다.
처음에는 내 방만 밝히려 켠 불.
길 잃은 이가 문을 두드린 뒤
나는 그 불을 문밖으로 내놓는다.
작은 불을 지킨다.

대응되는 부분	중간에서 생긴 변화	끝에서 읽히는 뜻
첫 행과 마지막 행의 '작은 불을 지킨다'	나만을 위한 불을 타인에게도 내놓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불을 지키겠다는 뜻이 더해진다.

처음과 끝을 이어 안정감·통일감·운율을 만들고 중요한 뜻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표현이나 내용이 대응하면 수미상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대응하고 뜻은 깊어진다



중간의 경험이 마지막 표현에 타인을 돕는 뜻을 더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수미상관은 첫 행과 끝 행의 완전한 복사다	비슷한 표현이나 내용의 대응도 살핀다.
처음과 끝이 같으므로 중간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중간의 경험이 마지막 표현의 의미를 바꾸거나 깊게 할 수 있다.

E14 두 대상이 나오면 모두 대비에 의한 전개인가요?

한 줄 답 두 대상·시간·공간·상태의 차이를 맞세워 무엇을 부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대비에 의한 전개	시간·공간·대상·상태 등을 맞세워 차이를 드러내며 시상을 펼침	무엇과 무엇의 어떤 차이를 부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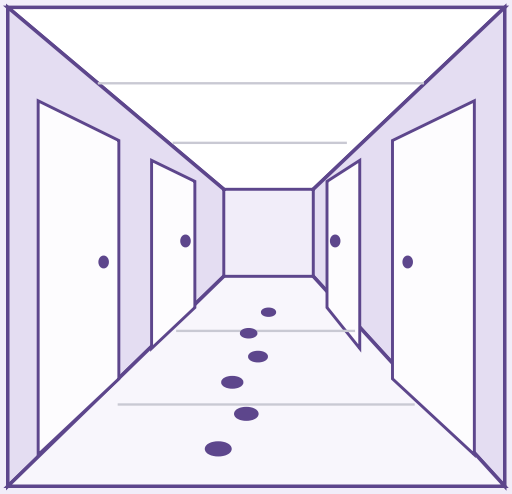
예와 판단

예	관계와 효과
큰 건물의 빈 복도에서는 발소리만 울린다. 낮은 집의 좁은 부엌에서는 이웃들의 웃음이 이어진다.	넓지만 적막한 곳과 좁지만 정겨운 곳을 맞세워 공간의 크기와 다른 삶의 온기를 드러낸다.
책상에 연필이 놓였다. 옆에는 공책이 놓였다.	두 물건을 제시했지만, 이 두 문장만으로 어떤 차이를 맞세웠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과거와 현재, 안과 밖, 나와 타인처럼 여러 기준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실제 표현에서 찾습니다.

맞세운 공간에서 차이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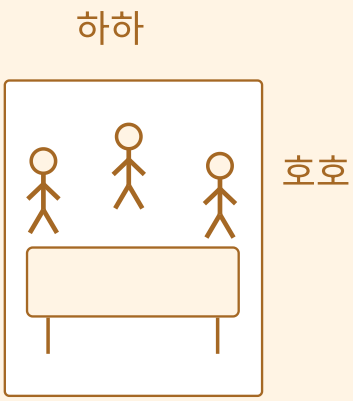
큰 건물의 빈 복도



발소리만 울림

↔

낮은 집의 좁은 부엌



이웃들의 웃음

크기: 넓다 ↔ 좁다

온기: 적막 ↔ 정겨움

공간이 크다고 따뜻한 것은 아니다. 표현이 드러낸 차이를 읽는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큰 것은 긍정, 작은 것은 부정이다	화자가 각 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대상이 바뀌면 반드시 대비이다	차이를 맞세우는지, 대상을 나란히 덧붙이기만 하는지 구별한다.

E15 선경후정의 앞부분에는 감정이 전혀 없나요?

한 줄 답 아니요.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그와 연결된 감정을 뒤에 드러내는 배열이며, 앞의 경치에도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선경후정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그와 연결되는 정서를 뒤에 드러냄	선경(先景, 먼저 경치)·후정(後情, 뒤에 정서)
관조적 태도	대상을 차분히 바라보는 태도	배열 순서와 별개로 화자의 태도를 확인

예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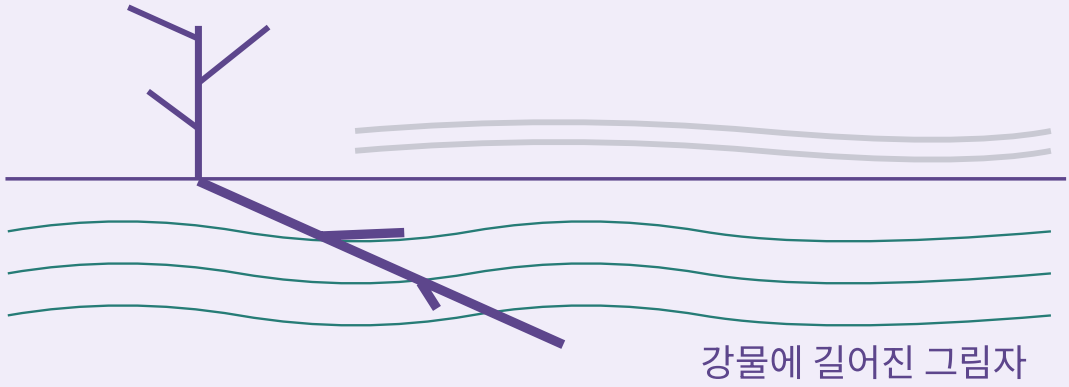
빈 둑에 저녁 안개가 낮게 깔린다.
혼자 선 나무의 그림자가 강물에 길어진다.
그 쓸쓸한 풍경 앞에서
오늘도 네 빈자리가 아프다.

먼저 제시한 것	뒤에서 드러낸 것	연결 근거
안개·나무·강물의 경치	부재한 상대를 그리워하는 아픔	‘그 쓸쓸한 풍경 앞에서’가 경치와 마음을 잇는다.

선경후정이라고 해서 화자가 반드시 평온하거나 관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 예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직접 드러납니다.

선경후정: 경치가 마음으로 이어짐

먼저: 빈 둑 · 저녁 안개 · 나무



↓

뒤: 빈자리의 아픔

오늘도 네 빈자리가 아프다.

앞의 경치에도 쓸쓸한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다.
선경후정은 배열, 관조는 태도이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자연물이 먼저 나오면 무조건 선경후정이다	뒤의 감정이 앞의 경치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한다.
앞은 감정이 전혀 없고 뒤에서 처음 생긴다	경치를 고르고 표현하는 방식에도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다.

E16 네 연으로 된 시는 모두 기승전결인가요?

한 줄 답 네 부분의 수보다 시작·이어 감·전환·마무리라는 역할과 관계를 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기승전결	시상을 시작하고 이어 가고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전개	각 부분이 실제로 하는 역할
기·승·전·결의 글자 뜻	기(起, 일으킴)·승(承, 이어받음)·전(轉, 바꿈)·결(結, 맺음)	한시의 짜임에서 온 말

예와 판단

부분	내용	역할
기	헤어진 친구가 준 씨앗을 꺼낸다.	시상을 시작한다.
승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친구를 기다린다.	처음의 생각과 행동을 이어 간다.
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편지를 쓰자고 생각한다.	기다림의 방식에 변화를 준다.
결	싹이 난 화분 곁에서 편지를 부치기로 한다.	달라진 마음을 행동의 다짐으로 끝맺는다.

기승전결은 모든 시에 억지로 맞추는 틀이 아닙니다. 전환의 내용도 장소·시선·생각·감정 등 작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 네 칸을 세기보다 역할을 읽는다

기
시작
친구가 준 씨앗을 꺼낸다.

↓

승
이어 감
심고 물을 주며 친구를 기다린다.

↓

전
전환
기다리기만 말고 먼저 편지를 쓰자.

↓

결
마무리
싹이 난 화분 곁에서 편지를 부치기로 한다.

‘전’은 실제 변화로, ‘결’은 끝맺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3연이면 언제나 ‘전’이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근거를 확인한다.
‘결’에서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다짐·물음·그리움 등을 남기면서 끝맺을 수도 있다.

III. 각 부분이 시상에 하는 일

E17 시상을 유발하는 계기는 첫 행의 사물인가요?

한 줄 답 위치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사건·감각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 떠올랐는지 봅니다.

용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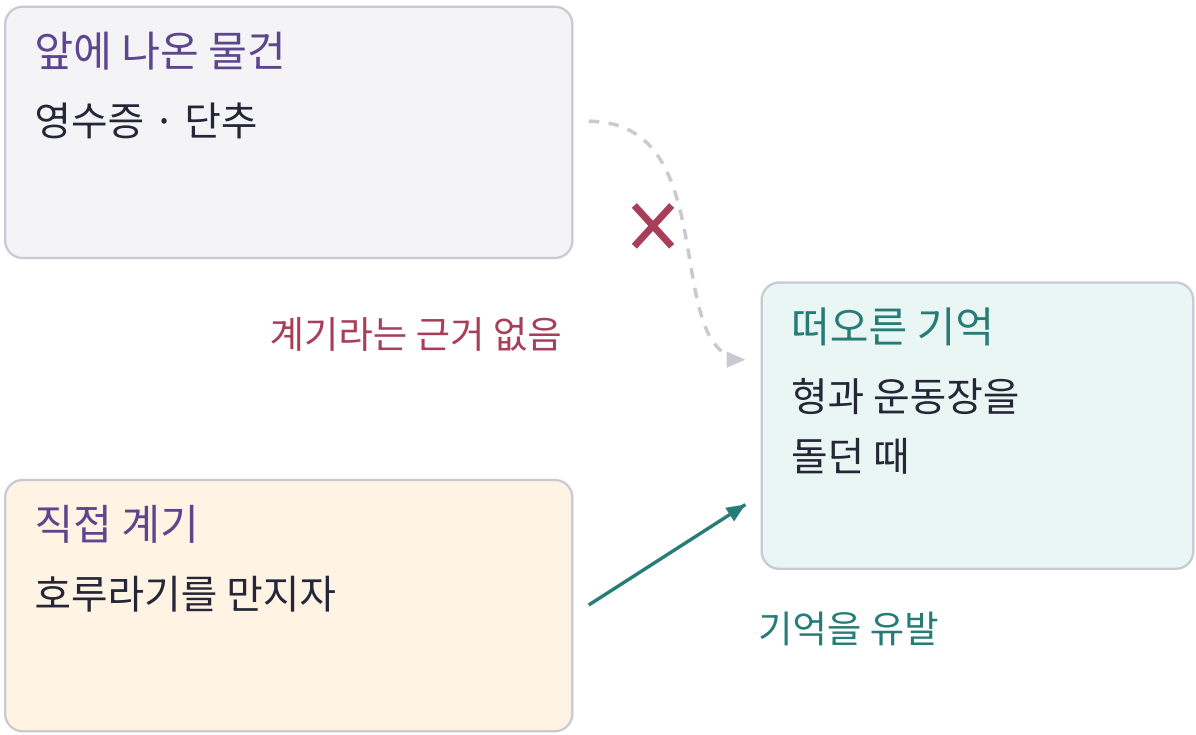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시상 유발	어떤 대상·사건·감각이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함	무엇 때문에 그 시상이 떠올랐는가

예와 판단

서랍 속에는 영수증과 단추가 뒤섞여 있었다.
작은 호루라기를 만지자
내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던 형이 떠올랐다.

후보	판단
영수증	먼저 나왔지만 형을 떠올린 직접 계기라는 근거는 없다.
호루라기를 만진 일	‘만지자’ 뒤에 회상이 이어져 기억을 떠올린 계기가 된다.

기억을 떠올리게 한 직접 계기 찾기



'만지자'가 호루라기와 형의 기억을 이어 준다.
먼저 등장한 순서보다 연결 표현을 확인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맨 처음 나온 사물이 언제나 시상 유발 소재다	그 사물과 생각·감정 사이의 연결 표현을 확인한다.
시상 유발은 작품 맨 앞에서만 가능하다	중간에 새로운 기억이나 생각을 떠올리는 계기가 놓일 수도 있다.

E18 시상 확산과 심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확산은 생각이 미치는 대상·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심화는 이미 드러난 생각이나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시상 확산	생각이나 감정이 여러 대상·상황으로 넓어짐	생각이 미치는 범위
시상 심화	이미 나타난 생각이나 감정이 더 깊어짐	그 마음의 까닭·의미를 얼마나 깊이 살피는가

네 가지 변화를 먼저 견주기

이름	기준	스스로 물을 질문	예
확산	범위	누구·무엇까지 생각이 넓어졌는가?	한 이웃 → 여러 사람
심화	깊이	그 마음의 까닭·의미를 더 깊이 살피는가?	서운함 → 자기 잘못까지 돌아봄
고조	강도	감정·긴장이 앞보다 강해졌는가?	미소 → 외침
전환	방향	생각·감정·장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원망 →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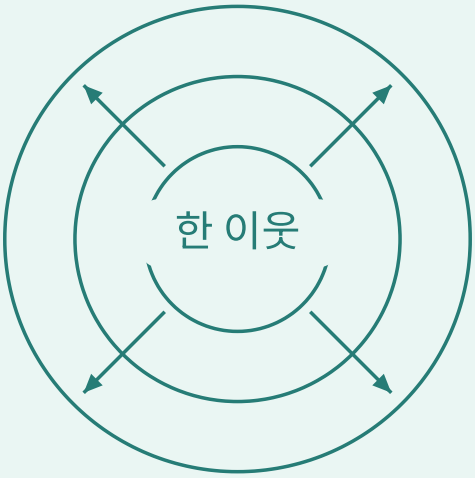
예와 판단

앞부분	뒤에 이어진 부분	주목할 변화
비를 맞는 이웃의 아이가 걱정된다.	잠자리 없이 비를 맞는 거리의 사람들까지 떠올린다.	걱정의 대상이 넓어지는 확산
그날 친구의 침묵이 서운했다.	돌이켜 보니 나도 친구의 말을 끊었다. 그 서운함 속에 내 부끄러움이 있었음을 헤아린다.	관계와 자기 마음을 더 깊게 돌아보는 심화

확산과 심화는 서로 배제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까닭까지 더 깊이 이해하는 대목에는 두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산은 범위 · 심화는 깊이

확산



여러 사람

심화

겉에서 느낀 마음

서운함

↓

내 태도까지 돌아봄

나도 말을 끊었다

↓

더 깊이 살핀 마음

부끄러움

서로 배제되는 이름이 아니다.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확산은 생각이 미치는 대상, 심화는 그 마음의 까닭·의미를 본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지명이 많아지면 무조건 시상 확산이다	장소 목록이 아니라 생각·감정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지 본다.
같은 감정어가 반복되면 무조건 심화이다	반복 뒤에 의미가 깊어지는 근거가 있는지 살핀다.

E19 감정이 강해지는 것과 마음이 바뀌는 것은 같나요?

한 줄 답 고조는 감정·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전환은 생각·감정·장면 등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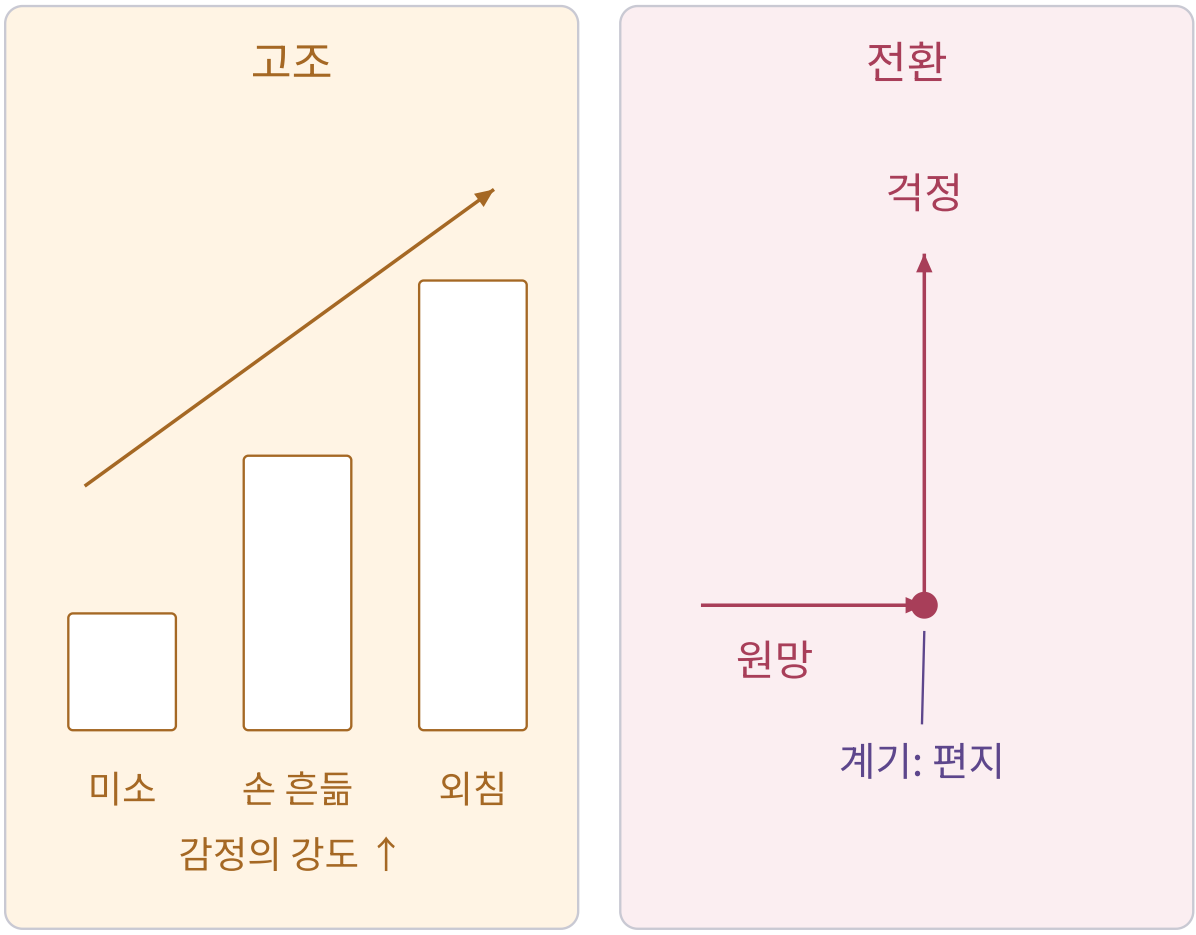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시상 고조	감정의 강도나 긴장감이 높아짐	앞보다 감정·긴장이 강해지는가
시상 전환	생각·감정·장면 등의 방향이 달라짐	앞뒤에서 무엇이 바뀌는가
시상 심화	생각이나 감정을 더 깊이 살핌	E18에서 본 깊이의 변화와 견주기

예와 판단

예	판단의 초점
기다리던 배를 보고 미소 짓다가 기쁨을 참지 못해 두 팔을 흔들며 외친다.	기쁨의 강도가 커지는 고조
오지 않는 친구를 원망하다가 아팠다는 편지를 읽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원망에서 걱정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
편지를 읽으며 내가 친구의 사정을 알려 하지 않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E18에서 본 심화와 견주기:** 자신의 태도와 관계를 더 깊게 돌아봄

‘그러나’가 없어도 전환은 일어날 수 있고, 느낌표가 없어도 감정은 고조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과 강도의 고조가 같은 대목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조는 강도 · 전환은 방향



서로 배제되는 이름이 아니다.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호 하나보다 앞뒤의 강도·방향 변화를 읽는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느낌표가 있으면 무조건 시상 고조다	앞부분과 비교해 감정·긴장이 높아지는지 확인한다.
'그러나'가 나오면 반드시 정반대 감정으로 바뀐다	뒤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읽는다. 장면·생각의 전환일 수도 있다.

E20 마지막 행은 언제나 시상을 집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나요?

한 줄 답 끝맺는 것과 앞의 뜻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다릅니다. 마무리되어도 고민이나 그리움은 남을 수 있습니다.

용어 뜻

용어	뜻 한 줄	볼 것(판단 기준)
시상 집약	앞에서 펼친 생각이나 감정을 한 표현·장면에 모음	앞의 뜻을 모으는가
시상 마무리	시상의 흐름을 끝맺음	어떤 방식으로 끝맺는가

예와 판단

앞부분과 끝부분	판단
이웃이 함께 지붕을 고치고, 아픈 이를 돌보고, 끼니를 나눈 뒤 '우리는 서로의 지붕이다'로 끝난다.	서로 돕는 장면의 뜻을 하나의 표현에 모으는 집약이며, 동시에 마무리다.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 뒤 '내일도 네 답을 기다리겠다'로 끝난다.	기다림을 이어 가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상대가 돌아왔거나 그리움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	앞의 뜻을 모으는가(집약)	끝맺는가(마무리)
여러 도움의 장면을 '서로의 지붕'에 모으며 끝남	○	○
중간에서 앞의 뜻을 모은 뒤 다른 장면으로 이어 감	○	×
앞의 여러 뜻을 한곳에 모으지 않고 새 물음으로 끝남	×	○

시상 집약은 마지막 행에만 가능한 기능도 아닙니다. 앞에서 펼친 뜻을 중간에서 모은 뒤 다른 방향으로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뜻을 모으는 것과 끝맺는 것 구별하기

지붕을 함께 고침
아픈 이를 돌봄
끼니를 나눔

→

집약
우리는
서로의 지붕이다.

여러 장면의 뜻을 한 표현에 모음

마무리
내일도 네 답을 기다리겠다.

기다림은 계속 ----------> (답은 아직)

집약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집약 없이 끝맺을 수도 있다.
작품이 끝나도 기다림이나 고민이 계속될 수 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마지막 행이니까 무조건 집약이다	앞의 여러 생각·감정이 그 표현에 모이는지 확인한다.
시가 끝나면 화자의 문제가 해결된다	작품의 끝과 상황의 해결은 별개다.

21 **시상의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낡은 의자가 버려진 줄 알았다.
> 이웃이 그 위에 앉아 신발 끈을 맨다.
> 나는 아직 누군가를 쉬게 할 자리가 남았다고 생각한다.

①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물에서 타인을 돕는 가치를 발견한다.
② 현재의 의자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간다.
③ 시간이 흐를수록 의자를 향한 미움만 강해진다.
④ 처음부터 의자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

답 [ ]

22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새벽에 문을 열고
> 한낮에 마당의 그늘을 찾고
> 해 질 무렵 하루의 먼지를 턴다.

① 새벽에서 한낮을 거쳐 저녁으로 순행한다.
② 여러 해를 돌아 다시 같은 계절로 온다.
③ 저녁의 현재에서 새벽의 과거로 거슬러 간다.
④ 모든 장면이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

답 [ ]

23 **시간의 제시 순서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오늘 빈 졸업사진 액자를 닦는다.
> 문득 열 해 전 그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

① 과거의 졸업식 뒤에 미래의 계획을 제시한다.
② 같은 날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흐른다.
③ 사계절을 차례로 거쳐 다음 봄을 맞는다.
④ 현재의 장면 뒤에 과거의 기억을 제시한다.

답 [ ]

24 **순환적 시간 흐름의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첫봄에 심은 씨가 여름과 가을을 지나 씨앗을 남기고, 겨울 뒤 다음 봄에 다시 싹튼다.
② 해가 뜬 뒤 같은 날 정오에 그늘을 찾는다.
③ 첫 행과 끝 행에서 같은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④ 오늘 낡은 사진을 보다가 어제 일을 떠올린다.

답 [ ]

25 **이 시의 시간 전개를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오늘 고향역에 서 있다.
> 스무 해 전 떠나던 날의 어린 나를 떠올린다.
> 안내 방송에 고개를 들고 다시 오늘의 플랫폼을 본다.

① 스무 해 전 장면이 나오므로 모든 부분이 과거이다.
② 과거를 회상한 뒤 현재로 돌아오며, 이것만으로 계절이나 하루의 순환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안내 방송이 나오므로 화자가 과거의 기차를 실제로 타고 있다.
④ 처음과 끝이 현재이므로 계절의 순환을 반드시 보여 준다.

답 [ ]

26 **세 부분이 제시하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각각 쓰시오.**

> ㉠ 오늘 나는 빈 화분을 내려다본다.
> ㉡ 지난해 이 화분에 꽃이 가득했던 날을 떠올린다.
> ㉢ 다음 봄에는 새 씨앗을 심으리라.

답 _____

27 **화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 선 채
> 발아래 물결을 보다가
> 고개를 들어 먼 언덕의 나무를 본다.

① 화자가 다리를 건너 언덕 위에 도착한다.
② 시선이 옮겨 갔으므로 시간은 반드시 과거로 돌아간다.
③ 물결에서 나무로 화자의 실제 위치가 바뀐다.
④ 화자는 제자리에 있고 시선이 가까운 물결에서 먼 나무로 옮겨 간다(근경 → 원경).

답 [ ]

28 **화자의 실제 공간 이동이 분명한 것은?**

① 나는 도서관 문을 나서 골목을 지나 강변에 도착했다.
② 도서관 창가에 앉아 강변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③ 강변을 그린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쳤다.
④ 어릴 때 자주 갔던 강변이 문득 떠올랐다.

답 [ ]

29 **두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가) 같은 의자에 앉아 새벽부터 밤까지 창밖을 본다.
> (나) 새벽에 역을 떠나 한낮에 들판을 지나고 밤에 산 아래 마을에 닿는다.

① (가)와 (나)는 모두 먼 산만 바라보는 시선 이동이다.
② (나)는 장소가 여러 개이므로 시간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소를 옮겨 가는 과정을 따라 전개된다.
④ (가)는 새벽부터 밤까지이므로 실제 공간 이동이 분명하다.

답 ____

30 **밑줄 친 대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나는 집을 나와 강가로 걸어갔다.
> 강가에 멈춰 선 채 발밑 조약돌에서 물 건너 버드나무로 눈길을 옮겼다.

① 조약돌과 버드나무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
② 실제 이동 뒤 제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대상을 바꾼다.
③ 작품 전체에 화자의 실제 공간 이동은 없다.
④ 밑줄 부분에서 화자가 강을 건너 버드나무 아래에 도착한다.

답 ____

31 **첫 행과 마지막 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작은 의자 하나를 남긴다.
> 떠난 친구의 자리를 지키려던 나는
> 먼 길 온 낯선 이에게도 앉으라고 말한다.
> 작은 의자 하나를 남긴다.

① 같은 행이므로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이를 거부한다.
② 마지막 행은 첫 행과 아무 표현도 공유하지 않는다.
③ 수미상관이므로 반드시 사계절이 한 바퀴 돈다.
④ 처음과 끝을 대응시키면서 의자를 남기는 뜻을 타인에게도 열어 준다.

답 ____

32 **수미상관·수미상응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 첫 부분: 아직 우리 길은 남아 있다.
> 중간 부분: 무너진 길을 함께 고치는 장면.
> 끝부분: 우리에게는 걸어갈 길이 아직 남았다.

① 문구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처음과 끝의 표현·내용이 대응한다.
② 끝부분이 있으므로 중간의 공동 작업은 해석에 필요 없다.
③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수미상관으로 볼 수 없다.
④ 길이 남았으므로 화자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었다.

답 ____

33 **대비에 의한 전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새 아파트의 넓은 복도에는 인사 한마디 없고
> 오래된 골목의 좁은 평상에는 서로의 안부가
> 넘친다.

① 두 공간의 크기가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넓은 공간이므로 화자는 반드시 그곳을 더 긍정한다.
③ 넓지만 소통이 없는 공간과 좁지만 정겨운 공간을 맞세운다.
④ 색채어를 맞세워 두 공간의 색을 대비한다.

답 [ ]

34 **이 시를 선경후정으로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 햇살이 빈 벤치 위에 오래 머물고
> 느린 물결이 둑의 그림자를 쓰다듬는다.
> 그 고요한 강가를 바라보니
> 서두르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다.

① 자연물이 나오므로 앞부분에는 어떤 정서도 담길 수 없다.
② 화자가 강을 건너 다른 도시로 실제 이동한다.
③ 네 행이므로 각 행이 자동으로 기·승·전·결이 된다.
④ 강가의 경치를 먼저 보인 뒤 그와 이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드러낸다.

답 [ ]

35 **선경후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앞의 경치와 뒤의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② 전개 순서와 화자의 태도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③ 앞부분의 경치를 고르는 방식에도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다.
④ 경치를 먼저 제시하면 화자의 태도는 반드시 관조적이고 평온하다.

답 [ ]

36 **네 부분을 기승전결로 읽을 때 ㉢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 비어 있는 동네 놀이터를 바라본다.
> ㉡ 예전에 아이들이 웃던 모습을 이어 떠올린다.
> ㉢ 추억만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네를 고치자고 생각한다.
> ㉣ 연장을 챙겨 내일 놀이터에 오겠다고 다짐한다.

① 앞의 생각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 방향의 변화는 없다.
② 네 부분 중 셋째이므로 내용과 무관하게 언제나 전환이다.
③ 모든 수리를 끝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④ 과거를 그리워하는 데서 현재의 행동을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답 [ ]

37 다음 시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 책상에는 우편물과 빈 컵이 놓였다.
> 봉투에서 마른 은행잎이 떨어지자
> 함께 걷던 가을길이 떠올랐다.

① 과거의 친구가 지금 문을 두드린 일
② 책상 위에 빈 컵이 놓인 일
③ 봉투에서 마른 은행잎이 떨어진 일
④ 화자가 다음 가을의 여행을 예약한 일

답 [ ]

38 생각의 범위가 확산된다고 판단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사장 앞에서 다친 이웃을 걱정하다가
>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는
> 이름 모를 사람들의 하루까지 헤아린다.

① 화자가 걱정을 완전히 잊고 웃기 시작한다.
② 화자가 실제로 여러 도시를 여행한다.
③ 걱정과 헤아림의 대상이 한 이웃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로 넓어진다.
④ 이웃 한 사람을 걱정하는 감정만 격해져 울음을 터뜨린다.

답 [ ]

39 시상이 심화된다는 설명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 텅 빈 점심상 앞에서 어머니가 그리웠다.
>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먹던 한 끼에
> 새벽부터 일어난 어머니의 시간이 담겨
> 있었구나.
> 그리움 속에서 이제야 그 수고의 무게를
> 헤아린다.

① 그립다는 말만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한다.
②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 순서를 계속 따라간다.
③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버리고 새로운 장소만 나열한다.
④ 그리움에서 나아가 평범하게 여겼던 한 끼에 담긴 어머니의 수고를 깊이 헤아린다.

답 [ ]

40 시상 고조의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시가 끝날 때까지 같은 사실을 차분히 기록한다.
② 화를 내다가 사정을 듣고 조용히 이해하게 된다.
③ 멀리 배가 보이자 반가움에 미소 짓다가, 가까워질수록 벅차올라 힘껏 손을 흔들며 외친다.
④ 작은 나무에서 옆 나무로 눈길을 옮긴다.

답 [ ]

41 다음 시에서 가장 분명한 시상의 변화는?

> 너는 나를 잊은 줄 알았다.
> 네가 병상에서도 내 주소를 적어 두었다는 말을 듣는다.
> 이제 네 소식이 없어도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겠다.

① 상대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생각으로 전환한다.
② 원망의 강도만 계속 커진다.
③ 화자가 병상에서 거리로 실제 이동한다.
④ 아무 계기 없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다.

답 [ ]

42 끝의 표현이 시상을 집약한다고 판단할 근거로 적절한 것은?

>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 누군가는 늦은 길을 동행하고
> 누군가는 아픈 밤에 곁을 지킨다.
>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다.

① 마지막 행이 앞의 도움을 모두 불필요하다고 부정한다.
② 마지막 행에 있으므로 앞부분의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을 돕던 마음에서 도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꾼다.
④ 서로 돕는 여러 장면의 뜻을 '서로의 버팀목'에 모은다.

답 [ ]

43 시상의 마무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밤새 네 답을 기다렸다.
> 휴대전화 화면은 끝내 밝아지지 않았다.
> 나는 내일도 기다리겠다고 적는다.

① 기다림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끝나며, 상대의 답이나 상황 해결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시가 끝났으므로 상대의 답이 반드시 도착했다.
③ 밤에서 내일을 말했으므로 사계절의 순환이 완성된다.
④ 마지막 행에서 기다림을 완전히 포기한다.

답 [ ]

44 두 설명을 함께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밤새 아버지를 걱정하던 나는
>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듣고
> 안도의 숨을 내쉬다가 기쁨을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린다.
>
> ㄱ. 걱정에서 안도와 기쁨으로 감정의 방향이 바뀐다.
> ㄴ. 안도한 뒤 기쁨이 벅차오르는 강도 변화가 나타난다.

① ㄴ만 타당하다. 울면 처음과 같은 걱정만 드러난다.
② ㄱ과 ㄴ이 모두 타당하며, 전환과 고조가 함께 나타난다.
③ ㄱ만 타당하다. 한 대목에 두 기능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④ 둘 다 타당하지 않다. 느낌표가 없으면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답 [ ]

3부. 작품에서 근거 찾기

자료 A 길을 고치는 날

문항 45~47

1	우리는 돌을 나른다.
2	우리는 돌을 나른다.
3	밤비에 끊어진 마을길 앞에서
4	아이의 손도 할머니의 손도 작은 돌을 보탠다.
5	우리는 돌을 나른다.

45 **자료 A의 표현 배열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재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한 뒤 현재로 돌아온다.

② 같은 행을 반복하다 중간에 다른 내용을 넣고 그 행으로 돌아온다.

③ 모든 행의 음절 수가 같다.

④ 매 행 끝에 뜻 없는 여음만 반복한다.

답 [ ]

46 **자료 A에서 3~4행이 마지막 반복에 더해 주는 뜻으로 적절한 것은?**

① 마을길을 함께 복구하는 여러 사람의 협력을 구체화한다.

②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도움을 거절했음을 밝힌다.

③ 길이 이미 완전히 복구되어 더 할 일이 없음을 확정한다.

④ 돌 나르기가 경쟁에서 남을 이기기 위한 일임을 밝힌다.

답 [ ]

47 **자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이 있으면 운율은 생길 수 없다.

② 마지막 행에는 처음과 반대로 돌을 나르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

③ 첫 행과 마지막 행이 같으므로 시간의 계절 순환이 분명하다.

④ 처음과 끝의 동일한 행은 수미상관을 이루며 공동 행동을 강조한다.

답 [ ]

자료 B 사진관 앞

문항 48~50

1	오늘 나는 문 닫힌 사진관 앞에 멈춰 섰다.
2	유리 안의 낡은 사진을 보자 스무 해 전이 떠올랐다.
3	그날 아버지는 내 옷깃을 고쳐 주고 나란히 웃으셨다.
4	버스의 경적에 나는 다시 오늘의 골목을 보았다.
5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창틀의 먼지에서 옥상의 풀로 눈길을 올렸다.
6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드려야겠다.

48 **자료 B에서 화자가 스무 해 전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나타난 행의 번호를 쓰시오.**

답 _____

49 **자료 B의 2~5행을 읽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거 회상에서 돌아온 뒤 옥상까지 실제로 올라간다.

② 네 행이 모두 스무 해 전 사진을 찍던 순간이다.

③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온 뒤 제자리에 서서 시선을 위로 옮긴다.

④ 오늘로 돌아오는 장면은 같은 시간의 주기가 반복되는 순환을 보여 준다.

답 [ ]

50 **자료 B의 마지막 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아버지와의 통화를 모두 마친 결과를 보고한다.

② 기억을 떠올렸으므로 현재의 행동과 관계가 없다.

③ 스무 해 전부터 현재까지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서술한다.

④ 회상을 거쳐 아버지께 먼저 연락하겠다는 현재의 다짐으로 끝맺는다.

답 [ ]

자료 C 흰 꽃잎

문항 51~53

1	밤비가 그친 뒤 뜰에는 흰 꽃잎이 흩어져 있다.
2	한쪽 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 하나가 닫혀 있다.
3	꽃이 모두 진 줄 알던 나는 그 봉오리를 오래 본다.
4	끝났다고 서둘러 단정한 내 마음이 부끄럽다.
5	친구의 서툰 첫 연주도 나는 너무 일찍 평가했구나.
6	다 피기 전의 시간을 기다리는 눈을 배우고 싶다.

51 **자료 C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뜰에서 공연장으로 실제 이동한다.

② 네 계절을 차례로 지나 다음 봄으로 돌아온다.

③ 뜰의 경치를 먼저 보이고 그 경치와 이어지는 자기반성과 소망을 드러낸다.

④ 먼저 자기반성을 제시한 뒤 경치를 덧붙여 그 마음을 설명한다.

답 ____

52 **자료 C에서 5행이 더해지며 생긴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① 친구의 연주 실력이 완성되었음을 확정한다.

② 자신은 성급히 판단한 적이 없다고 앞의 말을 취소한다.

③ 꽃을 성급히 판단한 일을 친구의 연주를 평가한 태도와 연결해 돌아본다.

④ 꽃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둔 채 친구를 원망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답 ____

53 **자료 C의 마지막 행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봉오리를 바라본 경험이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소망과 이어진다.

② 앞에서 돌아본 두 판단을 '기다리는 눈'이라는 표현에 모을 수 있다.

③ 소망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④ 이미 성급한 판단을 완전히 고쳤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확정한다.

답 ____

자료 D 우산을 고치며

문항 54~56

1	부러진 우산살을 펴며 친구의 답장을 기다린다.
2	천천히 실을 감고, 또 천천히 매듭을 묶는다.
3	친구도 지금 제 삶의 어긋난 자리를 고치느라 늦는 것은 아닐까.
4	그 생각은 지친 이웃과 서투른 나 자신에게까지 번진다.
5	나는 재촉하는 문자를 지우고 천천히 오라는 말을 적는다.
6	서로의 늦음을 기다리는 일, 그것이 오늘 내가 고친 마음이다.

54 **자료 D의 '천천히'가 하는 일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친구를 더욱 재촉하는 까닭을 나타낸다.

② 모든 행의 음절 수를 같게 만든다.

③ 작업의 속도와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이어 주며 반복된다.

④ 뜻이 없는 소리이므로 여음으로만 쓰인다.

답 [ ]

55 **자료 D의 3~5행에 함께 나타나는 시상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① 친구의 답장을 실제로 받은 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② 생각의 대상이 줄어들며 친구를 향한 분노만 강해진다.

③ 생각의 대상이 넓어지고, 친구를 재촉하던 태도가 기다려 주는 태도로 달라진다.

④ 화자가 여러 집을 방문한 동선만 시간순으로 나열한다.

답 [ ]

56 **자료 D의 마지막 행이 하는 일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우산을 고치며 달라진 마음을 기다림이라는 뜻으로 모아 끝맺는다.

② 앞의 생각과 관계없는 지식을 덧붙인다.

③ 친구의 사정이 반드시 자신이 추측한 그대로였음을 증명한다.

④ 앞에서 얻은 기다림의 태도를 부정하고 다시 상대를 재촉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답 [ ]

4부. 01·02편과 함께 읽기

자료 E 다시 잇는 박자

문항 57~60

1	동생아, 오늘은 네 녹음을 다시 듣는다.
2	지난 공연에서 박자를 놓친 뒤 나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으려 했다.
3	네가 건넨 연습 녹음에는 틀린 박자 사이에도 끝까지 두드린 북소리가 남아 있었다.
4	그 녹음은 멈춰 선 내 걸음을 밀어 주는 바람이다.
5	창가의 붉은 천이 흔들리고, 북에서는 둥둥 낮은 소리가 번진다.
6	나는 가장 느린 박자부터 손을 움직인다.
7	동생아, 오늘은 내 북을 다시 두드린다.

57 **자료 E의 화자와 청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녹음이 나오므로 시 전체의 화자는 동생이다.

② 화자가 동생에게 말을 건네지만 동생의 실제 응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시의 화자는 언제나 실제 작가와 완전히 같다.

④ 동생을 부르므로 반드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답 ____

58 **자료 E의 4~5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둥둥’은 북의 둥근 모양만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② 북소리를 붉게 표현하여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한다.

③ 녹음이 사람처럼 말한다고 표현하여 의인화한다.

④ 녹음을 바람에 빗대고, 붉은 천의 모습과 북소리를 각각 제시한다.

답 ____

59 **자료 E에서 2~3행을 거쳐 6~7행으로 이어지는 화자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실패를 동생의 탓으로 돌리며 동생을 원망한다.

② 녹음을 들은 것만으로 다음 공연의 성공을 확정한다.

③ 무대에 서지 않으려던 마음에서 다시 연습하는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달라진다.

④ 연습 녹음을 듣고도 끝까지 북 연주를 포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답 [ ]

60 **자료 E의 처음과 끝을 연결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다시'가 나오므로 마지막 장면은 반드시 지난 공연 때로 되돌아간다.

② 처음과 끝에서 동생을 부르므로 중간의 녹음을 듣는 경험은 필요 없는 내용이다.

③ '동생아, 오늘은 ~ 다시 ~'라는 대응 속에서 녹음을 듣는 일이 재시작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④ 문구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처음과 끝은 대응하지 않는다.

답 [ ]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①	21	①	41	①
02	③	22	①	42	④
03	②	23	④	43	①
04	3·4·5, 3음보	24	①	44	②
05	②	25	②	45	②
06	④	26	㉠ 현재, ㉡ 과거, ㉢ 미래	46	①
07	③	27	④	47	④
08	①	28	①	48	2행
09	①	29	③	49	③
10	②	30	②	50	④
11	②	31	④	51	③
12	①	32	①	52	③
13	②	33	③	53	④
14	④	34	④	54	③
15	②	35	④	55	③
16	저녁마다, 닦는다	36	④	56	①
17	①	37	③	57	②
18	②	38	③	58	④
19	②	39	④	59	③
20	②	40	③	60	③

해설 표의 ◯는 발문에 맞는 정답 보기를 뜻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에서도 정답으로 골라야 할 보기에 ◯를 표시했습니다.

01 정답 ①

①	○	**첫 행과 마지막 행의 '조금만 더'가 되풀이되며 호흡을 만든다.**
②	×	행의 길이와 별개로 같은 구절이 반복된다.
③	×	가운데 행은 첫 행·마지막 행과 음절 수가 다르다.
④	×	도착할 때까지 더 가려는 말이지 도착이 완료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1, E04 · **요약집:** 시05-01 · 시05-03

02 정답 ③

①	×	'별빛이'와 '풀잎이'는 각각 3음절이다.
②	×	앞부분과 뒷부분의 음절 수를 바꾸었다.
③	○	**'별빛이'·'풀잎이'는 3음절, '쏟아진다'·'흔들린다'는 4음절이므로 3·4조의 음수율이다.**
④	×	'쏟아진다'와 '흔들린다'의 4음절을 3음절로 잘못 세었다.

다시 볼 설명: E01, E02 · **요약집:** 시05-02 · 시05-04

03 정답 ②

①	×	행 끝의 '번진다'와 '내린다'는 동일한 시어가 아니다.
②	○	**두 행 모두 세 음보로 읽으며 3음보가 반복된다.**
③	×	의성어가 되풀이되는 예가 아니다.
④	×	둘째 행의 '저녁빛이'는 4음절이므로 모든 음보가 3음절인 것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요약집:** 시05-05

04 정답 3·4·5, 3음보

판단 근거: 저-산-에는 3음절, 흰-구-름-이는 4음절, 흘-러-갑-니-다는 5음절이다. 끊어 읽는 덩어리는 세 개이므로 3음보이다.

인정 답안: 음절 수 3·4·5와 음보 수 3을 모두 쓴 답. 총음절 수 12만 쓴 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2 · **요약집:** 시05-04 · 시05-05

05 정답 ②

①	×	전체 음절 수와 음보(끊어 읽는 덩어리)의 수는 다른 기준이다.
②	○	**'흰 잎이'는 3음절, '흰 꽃잎이'는 4음절이지만 음보(끊어 읽는 덩어리)는 두 행 모두 셋이다.**
③	×	첫째·셋째 음보의 표현과 3음보의 틀이 남아 있다.
④	×	음보는 띄어 쓴 어절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2, E06 · **요약집:** 시05-05 · 시05-11

06 정답 ④

①	×	표면의 감촉을 나타내지만 흉내 낸 말은 아니다.
②	×	'뒤뚱뒤뚱'은 걸음의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③	×	모양을 설명할 뿐 소리를 흉내 내지 않는다.
④	○	**'똑똑'은 물방울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를 흉내 낸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5-06 · 시05-07

07 정답 ③

①	×	‘팔랑팔랑’은 모양을 흉내 낸 말이다. 나비에 공동체가 붙여 온 뜻(관습적 상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②	×	날갯짓과 맛은 관계가 없다.
③	○	**날개의 가벼운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④	×	울음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의 모양을 나타낸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5-06 · 시05-08

함께 볼 개념: 관습적 상징은 02편 E19와 연결한다.

08 정답 ①

①	○	**‘차가운’은 온도를 나타내는 말이며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이 아니다.**
②	×	‘달칵’은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③	×	‘펄럭펄럭’은 흔들리는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④	×	‘깡충깡충’은 뛰는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5-06 · 시05-07 · 시05-08

함께 볼 개념: 02편 E03의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한다.

09 정답 ①

①	○	**사뿐히·스미는·새벽의·숨결의 첫소리가 모두 ㅅ이다.**
②	×	한 줄의 표현이며 ‘다’로 끝나지 않는다.
③	×	모든 음절이 ㅁ으로 끝나지 않는다.
④	×	낱말의 첫소리는 ㄱ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4 · **요약집:** 시05-01

10 정답 ②

①	×	‘고른다’와 ‘옮긴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②	○	**두 행이 ‘나는·너는 + 씨앗을·화분을 + 고른다·옮긴다’의 유사한 틀을 이룬다.**
③	×	핵심 낱말은 서로 다르며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
④	×	소리를 흉내 낸 말이 없다.

다시 볼 설명: E04 · **요약집:** 시05-01

함께 볼 개념: 연결 개념 시07-12를 적용한다.

11 정답 ②

①	×	‘길을 밝히자’라는 다짐의 뜻이 분명하다.
②	○	**각 연 마지막에 같은 말이 돌아오며 길을 밝히자는 다짐을 강조한다.**
③	×	밑줄 친 두 행은 같은 표현이며 음절 수를 늘리지 않는다.
④	×	불을 켜고 등잔을 지키는 행동과 이어지는 다짐이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5-09

12 정답 ①

①	○	**소리의 기능으로는 여음, 반복 위치로는 후렴구에 해당한다.**
②	×	각 연 끝마다 되풀이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	가락을 잇는 기능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④	×	후렴구는 뜻이 분명한 말과 여음 모두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5-09 · 시05-10

13 정답 ②

①	×	가락을 잇기 위해 붙였다는 설명이 그 기능의 근거이다.
②	○	**노래 끝에 붙였다고만 했으며, 여러 연의 일정한 위치에 반복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	'가락을 이어 간다'고 직접 제시되어 있다.
④	×	뜻을 전하는 낱말 대신 가락을 잇는 '라라라'가 여음으로 쓰였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5-09 · 시05-10

14 정답 ④

①	×	가락·호흡·정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다.
②	×	여음은 노랫가락을 돕는 소리이며 의성어만을 뜻하지 않는다.
③	×	각 연의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면 여음이 후렴구로 쓰일 수 있다.
④	○	**여음의 낱말로서의 뜻이 희박한 것과 표현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르다.**

다시 볼 설명: E05 · **요약집:** 시05-10

15 정답 ②

①	×	구체적인 계절·행동·감각 대상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②	○	**같은 문장 틀 안에서 봄·여름·가을과 꽃향기·빗소리·낙엽이 달라진다.**
③	×	계절과 감각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바뀐다.
④	×	'~에는 창을 열어 ~'라는 공통된 틀이 있다.

다시 볼 설명: E06 · **요약집:** 시05-11

16 정답 저녁마다, 닦는다

판단 근거: 가운데의 목적어만 바뀌고, 첫 어절 '저녁마다'와 마지막 어절 '닦는다'는 그대로 반복된다.

인정 답안: '저녁마다'와 '닦는다'를 둘 다 쓴 답. 순서는 상관없다. 마침표 유무는 채점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4, E06 · **요약집:** 시05-01 · 시05-11

17 정답 ①

①	○	**'찾아올 이를 위해'가 목적을 구체화하고 같은 권유가 마지막에 반복된다.**
②	×	셋째 행은 다른 내용으로 변화를 준다.
③	×	셋째 행은 열어 둘 목적이지 문을 닫자는 말이 아니다.
④	×	마지막 행은 첫째·둘째 행과 동일한 권유이다.

다시 볼 설명: E07 · **요약집:** 시05-12

18 정답 ②

①	×	둘째 행은 첫째 행과 같으며, 넷째 행은 셋째 행과 다르다.
②	○	**첫째·둘째·넷째 행이 같고 셋째 행이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
③	×	셋째 행이 다르고 넷째 행이 앞의 A로 돌아온다.
④	×	둘째 행과 셋째 행이 같은 B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7 · **요약집:** 시05-12

19 정답 ②

①	×	기쁨의 상황에서도 같은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에 관여한다.
②	○	**대답 없는 방과 돌아온 친구라는 문맥이 반복의 정서적 효과를 다르게 만든다.**
③	×	반복되는 구절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함께 읽어야 한다.
④	×	(나)에도 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온다.

다시 볼 설명: E01, E04 · **요약집:** 시05-01 · 시05-03

함께 볼 개념: 01편의 정서 판단과 연결한다.

20 정답 ②

①	×	'함께 걷자'가 되풀이되어 권유를 강조한다.
②	○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들꽃이'·'별들이'는 3음절, '피어난다'·'반짝인다'는 4음절로 3·4조가 반복된다.
④	×	각 연 끝의 '함께 걷자, 함께 걷자'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다시 볼 설명: E02, E03, E05 · **요약집:** 시05-04 · 시05-07 · 시05-09

21 정답 ①

①	○	**버려졌다고 본 의자를 이웃이 이용하는 장면을 보고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②	×	과거 회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마지막은 미움의 고조가 아니라 가치의 발견이다.
④	×	처음에는 버려졌다고 여기다가 뒤에서 타인을 돕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다시 볼 설명: E08, E19 · **요약집:** 시05-13 · 시05-14 · 시05-29

22 정답 ①

①	○	**제시 순서가 하루의 시간 순서를 따른다.**
②	×	하루의 시간 변화이며 여러 해나 계절 순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새벽이 먼저, 해 질 무렵이 나중에 제시된다.
④	×	새벽·한낮·해 질 무렵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5-15

23 정답 ④

①	×	처음은 현재이며 미래의 계획은 없다.
②	×	열 해라는 시간 차이가 있으며 순행하는 하루가 아니다.
③	×	계절의 주기가 제시되지 않는다.
④	○	**'오늘'에서 '열 해 전'으로 거슬러 간다.**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5-16

24 정답 ①

①	○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음 봄을 맞는 주기가 분명하다.**
②	×	하루 안에서 앞 시간에서 뒤 시간으로 흐르지만 한 주기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③	×	처음과 끝의 표현 대응이지 시간의 순환 근거가 아니다.
④	×	과거 회상이며 되풀이되는 시간의 주기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0 · **요약집:** 시05-17

25 정답 ②

①	×	처음과 끝의 '오늘'이 현재를 분명히 한다.
②	○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 흐름이다. 회상 뒤 현재로 복귀하며, 반복되는 계절·하루의 주기는 제시되지 않는다.**
③	×	방송은 오늘의 플랫폼으로 주의를 돌리는 계기이다.
④	×	현재 복귀와 시간 주기의 반복을 혼동했다.

다시 볼 설명: E09, E10 · **요약집:** 시05-16 · 시05-17

26 정답 ㉠ 현재, ㉡ 과거, ㉢ 미래

판단 근거: '오늘'은 현재, '지난해'의 회상은 과거, '다음 봄'의 계획은 미래이다. 과거 회상이 끼어든 역순행적 구성이며, 제시 순서는 현재 → 과거 → 미래이다.

인정 답안: ㉠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맞게 대응한 답.

다시 볼 설명: E09 · **요약집:** 시05-15 · 시05-16

27 정답 ④

①	×	언덕을 바라볼 뿐 그곳에 도착했다는 근거는 없다.
②	×	시선의 방향과 시간의 순서는 별개의 기준이다.
③	×	바라보는 대상의 변화를 몸의 이동으로 바꾸었다.
④	○	**'기대 선 채'로 몸의 위치를 유지하며, 가까운 물결에서 먼 나무로 눈길을 옮긴다(근경 → 원경).**

다시 볼 설명: E11 · **요약집:** 시05-19

28 정답 ①

①	○	**문을 나서고 골목을 지나 도착하는 동작이 실제 위치 변화를 보여 준다.**
②	×	몸은 창가에 있고 강변은 바라보는 대상이다.
③	×	강변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지도만 펼쳤다.
④	×	기억 속 장소를 떠올린 것으로 현재의 실제 이동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1 · **요약집:** 시05-18

29 정답 ③

①	×	(나)는 떠나고 지나고 닿는 실제 이동이며, (가)에 먼 산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	새벽·한낮·밤이라는 시간 정보도 분명히 있다.
③	○	**(나)는 시간 순서와 실제 이동 경로가 함께 드러나는 여정형 추보식 구성이다. (가)도 시간 순서의 전개이지만 몸의 이동은 없다. 이 문항은 추보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동을 함께 보여 주는지를 견준다.**
④	×	'같은 의자'에 앉아 있어 시간 변화가 곧 공간 이동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2 · **요약집:** 시05-15 · 시05-18 · 시05-20

30 정답 ②

①	×	사물의 위치가 아니라 화자의 눈길이 바뀐다.
②	○	**앞에서는 집에서 강가로 옮겼고 밑줄 부분에서는 멈춰 선 채 시선만 옮긴다.**
③	×	첫 문장에 집에서 강가로 걸어간 이동이 있다.
④	×	물 건너의 나무를 보는 것이지 강을 건넌 것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1 · **요약집:** 시05-18 · 시05-19

31 정답 ④

①	×	중간에서 낯선 이에게 앉으라고 말한다.
②	×	두 행은 같은 표현이다.
③	×	표현의 대응은 시간의 순환을 보증하지 않는다.
④	○	**동일한 행이 대응하고 중간의 낯선 이를 맞는 행동이 의미를 넓힌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5-21

32 정답 ①

①	○	**'우리', '길', '아직 남다'의 표현과 뜻이 처음과 끝에서 이어진다.**
②	×	중간의 작업이 마지막에 남아 있는 길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③	×	완전히 같은 표현만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내용도 대응할 수 있다.
④	×	걸어갈 길과 가능성을 말할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5-21

33 정답 ③

①	×	넓은 복도와 좁은 평상으로 차이를 드러낸다.
②	×	넓은 복도는 인사가 없고 좁은 평상은 안부가 넘친다.
③	○	**물리적 크기와 사람들의 관계를 엇갈리게 제시하여 정겨움의 차이를 부각한다.**
④	×	색채어가 아니라 공간의 크기와 소통의 상태를 맞세운다.

다시 볼 설명: E14 · **요약집:** 시05-22

34 정답 ④

①	×	경치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정서가 배어 있을 수 있다.
②	×	강가를 바라볼 뿐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장면은 없다.
③	×	행의 개수만으로 기능을 정할 수 없다.
④	○	**앞의 햇살·물결과 뒤의 가라앉는 마음을 '바라보니'가 연결한다.**

다시 볼 설명: E15 · **요약집:** 시05-23

35 정답 ④

①	×	경치와 정서의 연결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다.
②	×	배열과 대상에 대한 태도는 다른 기준이다.
③	×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선택된 장면과 표현에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④	○	**선경후정은 배열의 방식이다. 뒤에 격한 슬픔이나 원망이 드러날 수도 있다.**

다시 볼 설명: E15 · **요약집:** 시05-23

함께 볼 개념: 01편의 관조적 태도와 연결한다.

36 정답 ④

①	×	추억만 그리워하지 말자는 변화가 분명히 제시된다.
②	×	전환의 근거는 순번이 아니라 실제 생각의 변화이다.
③	×	고치자는 생각이며 완료한 결과가 아니다.
④	○	**회상과 그리움에서 수리하겠다는 행동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꾼다.**

다시 볼 설명: E16 · **요약집:** 시05-24

37 정답 ③

①	×	친구가 현재 찾아오는 장면은 없다.
②	×	컵과 가을길의 기억을 직접 잇는 표현은 없다.
③	○	**'떨어지자' 뒤에 가을길의 기억이 이어진다.**
④	×	여행 예약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7 · **요약집:** 시05-25

38 정답 ③

①	×	걱정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
②	×	몸의 이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	**감정과 생각이 미치는 대상이 확장된다.**
④	×	울음 등 감정의 고조보다 '이름 모를 사람들'로 대상이 넓어지는 데 근거가 있다.

다시 볼 설명: E18 · **요약집:** 시05-26

39 정답 ④

①	×	어머니의 시간과 수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해진다.
②	×	이전에 먹던 한 끼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새롭게 헤아린다.
③	×	어머니의 수고를 계속 살피며 장소를 나열하지 않는다.
④	○	**이미 드러난 그리움이 어머니의 시간과 수고를 이해하는 데까지 깊어진다.**

다시 볼 설명: E18 · **요약집:** 시05-27

40 정답 ③

①	×	감정이나 긴장이 높아지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②	×	핵심은 분노에서 이해로 바뀌는 방향의 전환이다.
③	○	**반가움의 강도가 미소에서 벅찬 외침으로 높아진다.**
④	×	시선 이동만 제시되며 감정의 강도 변화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19 · **요약집:** 시05-28

41 정답 ①

①	○	**새 소식을 계기로 상대를 보는 판단이 달라진다.**
②	×	끝에서 버렸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망을 유지·고조하지 않는다.
③	×	몸의 이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④	×	상대의 상황을 들은 일이 판단 변화의 계기로 제시된다.

다시 볼 설명: E19 · **요약집:** 시05-29

42 정답 ④

①	×	앞의 장면을 긍정하며 그 의미를 모은다.
②	×	집약은 마지막이라는 위치뿐 아니라 앞의 뜻을 모으는 관계로 판단한다.
③	×	도움을 거부하는 전환이 아니라 앞의 도움을 '버팀목'이라는 뜻으로 모은다.
④	○	**앞의 도움·동행·돌봄을 하나의 표현으로 아우른다.**

다시 볼 설명: E20 · **요약집:** 시05-30

43 정답 ①

①	○	**마지막은 기다리겠다는 다짐이지 답을 받은 결과가 아니다.**
②	×	답이 오지 않았고 내일도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③	×	다음 날을 내다볼 뿐 계절 순환은 없다.
④	×	'내일도 기다리겠다'는 포기와 반대이다.

다시 볼 설명: E20 · **요약집:** 시05-31

44 정답 ②

①	×	울음의 까닭이 기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	**수술 소식이 방향을 바꾸고, 이어 기쁨의 강도가 커진다.**
③	×	기능의 기준이 달라 전환과 고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④	×	기호가 아니라 서술된 감정의 내용과 변화를 보아야 한다.

다시 볼 설명: E19 · **요약집:** 시05-28 · 시05-29

45 정답 ②

①	×	과거 회상이 제시되지 않는다.
②	○	**1·2·5행이 같은 A이며 3~4행이 변화된 부분 B가 된다.**
③	×	중간 행들은 반복 행과 음절 수가 다르다.
④	×	'돌을 나른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여음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4, E07 · **요약집:** 시05-01 · 시05-12

46 정답 ①

①	○	**끊어진 길이라는 상황과 아이·할머니가 돌을 보태는 행동이 '우리'의 공동 작업을 드러낸다.**
②	×	여러 사람이 작은 돌을 보태며 협력한다.
③	×	공동 작업 중인 장면이며 복구 완료는 제시되지 않는다.
④	×	경쟁이나 승리의 목적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7 · **요약집:** 시05-12 · 시05-14

47 정답 ④

①	×	같은 행의 반복은 통일감·강조와 함께 운율에도 관여한다.
②	×	행동을 부정하는 문맥이 없다.
③	×	표현의 대응만으로 계절 주기를 판단할 수 없다.
④	○	**1행과 5행이 대응하고 반복 내용이 돌을 함께 나르는 일이다.**

다시 볼 설명: E13 · **요약집:** 시05-21

48 정답 2행

판단 근거: 2행의 '낡은 사진을 보자'가 스무 해 전 기억을 떠올리는 직접적인 계기이다. 3행은 떠오른 기억의 내용이고 4행은 현재로 돌아오는 계기이다.

인정 답안: 2 또는 2행. 다른 행을 함께 쓰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9, E17 · **요약집:** 시05-16 · 시05-25

49 정답 ③

①	×	5행은 그 자리에 선 채 눈길을 올린다고 한다.
②	×	4행에서 오늘의 골목으로 돌아오고 5행도 현재이다.
③	○	**2~3행의 과거 회상 뒤 4행에서 현재로 복귀하는 역순행적 흐름이다. 5행은 몸을 고정한 채 먼지에서 옥상의 풀로 시선을 옮긴다.**
④	×	오늘로 복귀한 것은 회상이 끝났기 때문이다. 계절·하루의 주기가 반복된 것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9, E11 · **요약집:** 시05-16 · 시05-19

50 정답 ④

①	×	'드려야겠다'는 다짐이지 이미 통화했다는 결과가 아니다.
②	×	마지막에 현재의 행동 계획을 직접 제시한다.
③	×	일부 과거를 회상할 뿐 스무 해 전체를 순행 서술하지 않는다.
④	○	**기억과 현재 장면 뒤에 전화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한다.**

다시 볼 설명: E08, E20 · **요약집:** 시05-14 · 시05-31

51 정답 ③

①	×	친구의 연주를 떠올릴 뿐 공연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②	×	계절의 한 주기는 제시되지 않는다.
③	○	**1~2행의 꽃잎·봉오리에서 3~6행의 돌아봄과 소망으로 이어진다.**
④	×	순서를 뒤집었다. 1~2행의 경치가 먼저이고 자기반성과 소망이 뒤따른다.

다시 볼 설명: E15 · **요약집:** 시05-23

52 정답 ③

①	×	서툰 첫 연주를 너무 일찍 평가했다고 할 뿐 완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②	×	꽃과 친구를 모두 너무 일찍 판단했다는 자각을 이어 간다.
③	○	**자연을 보는 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로 생각을 넓혀 성찰한다.**
④	×	원망이 아니라 꽃과 친구를 성급히 평가한 자신의 태도를 함께 돌아본다.

다시 볼 설명: E18 · **요약집:** 시05-26 · 시05-27

53 정답 ④

①	×	봉오리의 발견이 성급함을 돌아보게 하고 기다림을 바라게 한다.
②	×	꽃과 친구를 성급히 평가한 일을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다.
③	×	‘배우고 싶다’가 바라는 마음으로 끝맺는다.
④	○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다. 완성이나 이후 실수 없음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20 · **요약집:** 시05-30 · 시05-31

54 정답 ③

①	×	5행에서 재촉하는 문자를 지우고 천천히 오라고 한다.
②	×	일부 시어의 반복과 전체 행의 음절 수 일치는 다르다.
③	○	**2행의 실 감기·매듭 묶기와 5행의 천천히 오라는 말이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는 뜻으로 연결된다.**
④	×	‘천천히’는 작업과 기다림의 속도를 나타내는 뜻이 있다.

다시 볼 설명: E04, E08 · **요약집:** 시05-01 · 시05-14

55 정답 ③

①	×	친구의 답장 도착이나 삶의 문제 해결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	대상은 오히려 넓어지고 태도는 기다려 주는 쪽으로 바뀐다.
③	○	**3~4행은 친구에서 이웃·자신으로 확산하고 5행은 재촉에서 배려로 전환한다.**
④	×	집을 방문하는 공간 이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8, E19 · **요약집:** 시05-26 · 시05-29

56 정답 ①

①	○	**앞의 작업·생각·문자 변경을 '서로의 늦음을 기다리는 일'과 '고친 마음'에 집약한다.**
②	×	앞의 여러 장면에서 드러난 태도를 모으는 표현이다.
③	×	친구의 사정은 헤아린 가능성이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
④	×	마지막은 앞의 기다림을 부정하지 않고 그 뜻을 모아 끝맺는다.

다시 볼 설명: E20 · **요약집:** 시05-30 · 시05-31

57 정답 ②

①	×	녹음을 듣고 다시 연주하는 화자가 동생에게 말한다.
②	○	**1·7행에서 동생을 부르며 말하고, 동생의 직접적인 대답은 없다.**
③	×	화자는 작품 안의 말하는 이이며 실제 작가와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④	×	청자 설정과 실제 응답 제시는 별개이다.

다시 볼 설명: E08 · **요약집:** 시05-13

함께 볼 개념: 01편 E01~E03의 화자·청자와 연결한다.

58 정답 ④

①	×	문맥의 '둥둥'은 북을 두드리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②	×	붉은 것은 천이며 북소리의 색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③	×	녹음을 '바람'과 동일시한 은유이다. 녹음 자체에 사람처럼 말하는 성질을 부여한 표현은 없다.
④	○	**4행은 녹음과 바람을 동일시한 은유이며 5행은 시각과 청각 대상을 따로 나타낸다.**

다시 볼 설명: E03 · **요약집:** 시05-07

함께 볼 개념: 02편 E08·E14의 복합 감각적 이미지·은유와 연결한다.

59 정답 ③

①	×	화자가 동생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표현은 없다.
②	×	연습을 다시 시작했을 뿐 다음 공연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는다.
③	○	**2행에서는 그만두려 했지만, 녹음을 들은 뒤 가장 느린 박자부터 실제로 다시 시작한다.**
④	×	6~7행에서 손을 움직이고 북을 다시 두드린다.

다시 볼 설명: E19, E20 · **요약집:** 시05-29 · 시05-31

함께 볼 개념: 01편 E09의 체념·의지 등 현실 대응과 연결한다.

60 **정답 ③**

①	×	마지막은 오늘의 재시작이며 '다시'가 반드시 시간 역행을 뜻하지 않는다.
②	×	끝까지 두드린 북소리를 듣는 경험이 마지막 재시작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③	○	**1행과 7행의 유사한 표현이 대응하고 중간 경험을 거쳐 북을 다시 두드리는 행동에 닿는다.**
④	×	비슷한 표현과 내용의 대응도 수미상관·수미상응으로 읽을 수 있다.

다시 볼 설명: **E06**, **E13** · **요약집:** 시05-11 · 시05-21